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제8회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너 없는 우리
수상내역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작가	임의영
공모분야	시나리오
장르	영화, 드라마
소재	만남과 사람(청주명소배경)
이야기 소재 (Motive)	사랑은 타이밍이다. 사랑할 수 있을 때, 고백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잔인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녀가 옆에 있을 때, 손을 뻗으면 언제나 닿는 곳에 있을 때는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던 한 남자가, 그녀가 곁을 떠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를 바라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스토리 구성 (Plot)	<p><b>기 - 주인공 성준 아내 은홍의 죽음</b>  성준은 선산으로 은홍의 유골함 들고 가야하지만 태풍이 와서 일단 집으로 간다. 친구인 훈철에 의해 성준이 비행기 조종사이던 10년 전에 청도 비행에서 이미 은홍을 만났음을 알게 되는 성준.  성준은 은홍을, 한쪽 귀의 청력이상으로 조종사자격을 잃고 방황하던 때 반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선뵈서 결혼한 여자라고만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은홍에 대한 감정은 무덤덤하기만 하다.  은홍의 동생 은소에게서 '분골함을 자신에게 주면 안되겠냐, 형부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은 성준은 '아내에게서 도망가고 싶은 사람은 나였다. 아내는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린다.</p> <p><b>승 - 청주로 출발</b>  선산으로 가려고 고속도로에 들어섰던 성준은 청주 나들목 근처에서 차가 막히자 짜증이 나있던 터에 은홍의 고향이 청주였던 말을 듣고, 청주에 유골을 뿌리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청주로 들어선다.  상당산성에 유골함을 들고 올라갔던 성준은 은홍의 다이어리에서 누군가를 보고 싶단 글자를 찾아내고 은홍이 나왔던 고등학교를 찾아간다.</p>

거기서 은홍이 고교시절 사귀던 한재형이란 사람이 아직도 은홍을 기다리고 있단 얘기를 듣고 다시 재형이 조정선수로 있는 충주탄금호로 가는데....

**전 - 은홍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은홍을 그저 아내로만 밋밋하게 생각했던 성준은 재형을 만나며 질투가 생기고 은홍이 사랑했던 남자가 재형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남자인지 궁금해진다.

은소는 은홍이 좋아했던 남자는 성준도, 재형도 아니고 청도에서 만난 남자라고 말한다. 그 당시 청도에 성준과 같이 갔던 친구 훈철을 떠올리는 성준. 은홍이 자신과 결혼한 이유가 이미 결혼한 훈철의 옆에 있고 싶어서였다는 추측을 하며 질투심과 배신감으로 몸부림치는데.... 다이어리의 보고 싶단 글자 옆에 찢어져 없어진 글씨와 은홍의 유품을 뒤지다 은홍의 사랑이 '성준 자신'이었음을 발견하는 성준

**결 - 새로 시작되는 사랑**

매일 봐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 자락도 보지 못했던 성준은 은홍이 떠나버린 순간 은홍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은홍이 자신을 부르는 듯 해 따라간 곳은 지금은 흰색 페인트로 그려져 있는 은홍의 사고 지점. 은홍이 누워있었던 모양 그대로 놓는 성준에게 은홍에게서 문자가 온다. "생일 축하해요! 바쁘면 못 볼까봐 미리 예약문자 보내는 건데, 성준씨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이 꼭 나였으면 해요. 죽는 날까지...."



:: 최우수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 너 없는 우리



임 의 영

## 기획의도

### 1. 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북도 곳곳의 이미지화

한반도의 중심축에 위치한 충청북도! 깨끗하고 깔끔한 도시와 여유로운 충청도인들, 그리고 그들의 소박한 삶을 감싸주는 아름다운 자연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정말 잘 어울리는 배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주를 배경으로 하는 사랑이야기 한편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만들고자 한다.

### 2. 그녀가 죽은 후 시작된 사랑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쉽게 주어진 행운에 무심하다. 이미 갖고 있는 것, 힘들게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렇다. 그녀가 옆에 있을 때, 손을 뻗으면 언제나 닿는 곳에 있을 때는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그녀가 곁을 떠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를 바라보게 된 한 남자의 늦어서 슬픈 사랑이야기가 시작된다.

### 3. 희망의 메시지

이별, 죽음 등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좌절이나 실망만이 아니다. 어쩌면 죽음은 삶의 연속이며, 이별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일 수도 있다. 살아있었으나 남자의 마음속에서 죽어있던 그녀는 죽음을 통해 남자의 마음속에서 살아난다. 그녀는 행복해진다. 남자도 고통스럽지만 그만큼의 행복을 얻을 것이다. 남자의 마음속에 청주에서의 하루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기에...

## 작품소개서

구 분	내 용
이야기 소재 (Motive)	사랑은 타이밍이다. 사랑할 수 있을 때, 고백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잔인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녀가 옆에 있을 때, 손을 뻗으면 언제나 닿는 곳에 있을 때는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던 한 남자가, 그녀가 곁을 떠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를 바라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스토리 구성 (Plot)	<p>기 - 주인공 성준 아내 은홍의 죽음</p> <p>성준은 선산으로 은홍의 유골함 들고 가야하지만 태풍이 와서 일단 집으로 간다. 친구인 훈철에 의해 성준이 비행기 조종사이던 10년 전에 청도 비행에서 이미 은홍을 만났음을 알게 되는 성준.</p> <p>성준은 은홍을, 한쪽 귀의 청력이상으로 조종사자격을 잃고 방황하던 때 반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섰서 결혼한 여자라고만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은홍에 대한 감정은 무덤덤하기만 하다.</p> <p>은홍의 동생 은소에게서 ‘분골함을 자신에게 주면 안되겠냐, 형부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은 성준은 ‘아내에게서 도망가고 싶은 사람은 나였다. 아내는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린다.</p> <p>승 - 청주로 출발</p> <p>선산으로 가려고 고속도로에 들어섰던 성준은 청주 나들목 근처에서 차가 막히자 짜증이</p>

	<p>나있던 터에 은홍의 고향이 청주였단 말을 듣고, 청주에 유골을 뿌리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청주로 들어선다.</p> <p>상당산성에 유골함을 들고 올라갔던 성준은 은홍의 다이어리에서 누군가를 보고 싶단 글자를 찾아내고 은홍이 나왔던 고등학교를 찾아간다.</p> <p>거기서 은홍이 고교시절 사귀던 한재형이란 사람이 아직도 은홍을 기다리고 있던 얘기를 듣고 다시 재형이 조정선수로 있는 충주탄금호로 가는데....</p> <p>전 - 은홍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p> <p>은홍을 그저 아내로만 밋밋하게 생각했던 성준은 재형을 만나며 질투가 생기고 은홍이 사랑했던 남자가 재형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남자인지 궁금해진다.</p> <p>은소는 은홍이 좋아했던 남자는 성준도, 재형도 아니고 청도에서 만난 남자라고 말한다. 그 당시 청도에 성준과 같이 갔던 친구 훈철을 떠올리는 성준. 은홍이 자신과 결혼한 이유가 이미 결혼한 훈철의 옆에 있고 싶어서였다는 추측을 하며 질투심과 배신감으로 몸부림치는데.... 다이어리의 보고 싶단 글자 옆에 찢어져 없어진 글씨와 은홍의 유품을 뒤지다 은홍의 사랑이 ‘성준 자신’이었음을 발견하는 성준</p> <p>결 - 새로 시작되는 사랑</p> <p>매일 봐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 자락도 보지 못했던 성준은 은홍이 떠나버린 순간 은홍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은홍이 자신을 부르는 듯 해 따라간 곳은 흰색 페인트로 그려져 있는 은홍의 사고 지점. 은홍이 누워있었던 모양 그대로 눕는 성준에게 은홍에게서 문자가 온다. “생일 축하해요! 바쁘면 못 볼까봐 미리 예약문자 보내는 건데, 성준씨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이 꼭 나였으면 해요. 죽는 날까지....”</p>
<p><b>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b></p>	<p><b>김 성 준</b> 남, 38세 전직 조종사. 현재 항공사 근무</p> <p>29살 때 소개로 결혼. 결혼 5년차다. 여객기 조종사였으나 오른 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면서 지상근무로 바뀐 후, 반 자포자기 상태로 결혼했다. 처음부터 열렬히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고, 조용조용하고 심심하기만 한 아내 은홍을 그저 집안의 가구처럼 무심하게 보고 살아왔다. 머릿속은 온통 회사와 일 뿐이고 집에서 하는 일은 식사하고 휴식하는 일 밖에 없는 워크 홀릭.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숨기려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p> <p>은홍의 예기치 않았던 사망으로 우연히 은홍의 고향에 들르게 되면서, 그 동안 모르고 있던 은홍의 첫사랑을 만나게 되고....</p> <p>그에게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된다.</p> <p><b>이 은 홍</b> 여, 30세</p> <p>대학에 입학할 무렵부터 서울에 살았다. 은홍의 고향은 청주.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살았지만 남편 성준은 은홍의 고향에 대해 궁금해 한 적이 없다. 물론 그녀도</p>

	<p>고향 얘기는 성준에게 잘 하지 않는다. 사귀던 재형이 자신 때문에 조정을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그 길로 떠나온 고향 청주! 그녀에게 있어 고향 청주는 잊고 싶은.... 하지만 그리운.... 젊은 날의 초상이다.</p> <p>그리운 도시 청주에 다시 돌아온 날, 그녀의 사랑도 완성된다.</p> <p><b>한 재 형</b>        남, 30세        청주 토박이. 은홍이의 첫사랑. 은홍과 함께 조정부에 들어오면서 조정 선수로서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게 밝던 은홍이 어느 날 물거품처럼 재형의 곁을 떠났다. 확실히 이별을 하고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은홍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돌아온 은홍에게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한다.</p> <p><b>이 은 소</b>        여, 28세        은홍의 동생. 은홍을 가장 많이 생각해준다.        성준이 은홍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해 성준에게 차갑게 대한다.</p> <p><b>차 훈 철</b>        남, 38세        성준의 친구이자 동료. 대학교 때부터 조종사가 될 때까지 거의 같은 길을 걸어온 친구. 성준보다 일찍 결혼했다.</p>
--	--

그녀의 사랑이 끝난 날  
그의 사랑이 시작된다.

너무 늦어 슬픈 **사랑 이야기**

# 너 없는 우리

## 등장인물

### 김 성 준

남, 38세 전직 조종사. 현재 항공사 근무

29살 때 소개로 결혼. 결혼 5년차다. 여객기 조종사였으나 오른 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면서 지상근무로 바뀐 후, 반 자포자기 상태로 결혼했다. 처음부터 열렬히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고, 조용조용하고 심심하기만 한 아내 은홍을 그저 집안의 가구처럼 무심하게 보고 살아왔다. 머릿속은 온통 회사와 일 뿐이고 집에서 하는 일은 식사하고 휴식하는 일 밖에 없는 워크 홀릭.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숨기려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은홍의 예기치 않았던 사망으로 우연히 은홍의 고향에 들르게 되면서, 그 동안 모르고 있던 은홍의 첫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된다.

### 이 은 홍

여, 30세

대학에 입학할 무렵부터 서울에 살았다. 은홍의 고향은 청주.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살았지만 남편 성준은 은홍의 고향에 대해 궁금해 한 적이 없다. 물론 그녀도 고향 얘기는 성준에게 잘 하지 않는다. 사귀던 재형이 자신 때문에 조정을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그 길로 떠나온 고향 청주! 그녀에게 있어 고향 청주는 잊고 싶은.... 하지만 그리운.... 젊은 날의 초상이다.

그리운 도시 청주에 다시 돌아온 날, 그녀의 사랑도 완성된다.

### 한 재 형

남, 30세

청주 토박이. 은홍이의 첫사랑. 은홍과 함께 조정부에 들어오면서 조정 선수로서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게 밝던 은홍이 어느 날 물거품처럼 재형의 곁을 떠났다. 확실히 이별을 하고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은홍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돌아온 은홍에게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한다.

## 이 은 소

여, 28세

은홍의 동생. 은홍을 가장 많이 생각해준다.

성준이 은홍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해 성준에게 차갑게 대한다.

## 차 훈 철

남, 38세

성준의 친구이자 동료. 대학교 때부터 조종사가 될 때까지 거의 같은 길을 걸어온

친구. 성준보다 일찍 결혼했다.

## 그 외

은홍의 부모, 성준의 모, 은홍의 옛 선배, 조정선수들, 시장 사람들.....

## 시놉시스

한쪽귀가 들리지 않아 조종사를 그만두고 지상근무를 하게 된 성준은, 어느 날 출근을 하다가 아내인 은홍의 교통사고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은홍은 성준과 선을 봐서 결혼한 여자로 결혼생활은 그저 담담했고, 둘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다. 은홍을 화장해 나오던 날, 은홍의 동생 은소는 성준에게 원망의 눈길과 함께 ‘언니를 이렇게 만든 게 형부’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은홍의 휴대폰에는 ‘살아있니? 날 잊어버릴 만큼 행복해?’라는 내용으로, 발신자 표시가 없는 문자가 온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선산으로 못가고 일단 집으로 가게 된 성준은 친구인 훈철로부터, 성준이 은홍과 결혼하기 훨씬 전에 만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10년 전 쯤, 훈철과 성준이 조종사로 중국 청도에 비행갔을 때, 거리에서 쓰러진 은홍을 성준이 구해주고, 하루를 같이 보냈었던 얘기를 해주자 그제야 기억을 떠올리는 성준. 그때 은홍은 누군가와 헤어진 직후여서 마음을 잡기 위해 여행을 떠났었다.

같이 있어주겠다는 훈철을 거절하고 혼자 집으로 온 성준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었던 은홍과의 첫 만남을 떠올린다. 그때 성준은 오른 쪽 귀의 청력이 상실돼 조종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아무라도 좋다는 심정으로 결혼을 했었다. 그때 만난 여자가 은홍이다. 아니 그때가 처음이라고 생각했었다.

은홍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서 부모에 의해 떠밀려서 결혼했다고 알고 있는 은소가 성준에게 전화를 걸어온다. ‘형부에게서 그만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는 은소의 말에, 은홍은 자기완 다른 세계에서 살았다며 ‘벗어나고 싶은 건 자신이였다’고 대답하는 성준. 성준이 알고 있는 은홍은, 성우가 되겠다며 mp3에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녹음하고, 빨랫줄에 돈, 메모지, 수강증 같은 것도 널어놓는 엉뚱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게다가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없자 병원을 다녀온 은홍은 자신이 불임이라며 ‘나을 수 있어도 낫지 않았을 거다. 나쁜 사람보단 모자란 사람이 낫지 않



나'고 말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던 것이다.

다음날, 성준은 분골함을 싣고 고속도로로 들어선다. 하지만 선산으로 가려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던 중 청주 나들목 근처에서 도로는 딱 막히고, 저번에 왔던 문자와 비슷한 문자가 또 온다. '고향에 한 번 안 올래? 보고 싶다.' 은홍의 고향이 청주란 걸 알게 된 성준은 선산 대신 청주로 방향을 돌린다. 은홍의 다이어리에서 <보고 싶다>라고 썼지만 찢어진 것 같은 글씨와 함께 열일곱 살로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을 발견한 성준은, 은소에게 전화해 은홍이 다녔던 고등학교를 찾아간다. 그 곳에서 은홍이 고교생 시절, 조정선수였던 재형과 사귀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재형을 만나러갈까 말까 고민하던 성준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만나러 간다. 은홍의 사촌오빠인 척 둘러대고 재형과 이야기 하던 성준은 은홍이 재형과 정말로 사귀었으며, 재형은 아직도 은홍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자 평정심을 잃고 재형과 주먹 다툼을 한다. 게다가 아이는 별로 갖고 싶지 않다고 자신에게 했던 말과 달리, 고교시절엔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다는 것을 알아내곤, 자기가 알고 있던 은홍과는 너무 다른 모습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혼란스럽기만 한데. 성준이 재형과 싸우고 비틀거리며 가버리자,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던 은소가 재형에게 다가온다. 은홍이 떠난 건, 재형의 앞길을 은홍이 막고 있다는 코치선생님의 말에 따라 재형을 위해 몰래 사라져준 것이라고 말하자, 놀라는 재형. 은소는, 은홍이 최근까지 좋아한 사람은 재형도, 성준도 아닌 다른 사람이라며 은홍을 그만 잊으라고 한다.

모닥불을 피우고 은홍의 유품들을 태우는 성준. 그러다 친구 훈철과 은홍이 몇 번 만났었다는 기억을 떠올리고, 은홍이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이 훈철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 참에, 은소에게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중국 가서 만난 사람'이라는 말을 듣자 훈철이 맞다는 확신을 한다. 훈철의 옆에 있기 위해 자신과 결혼했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배신감과 질투심이 끓어오르는데.

이때, 은홍의 휴대폰에 녹음된 영상에서, 은홍이 아니라 성준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사연이 흘러나오고.... 은홍의 다이어리에 적힌 글이 성준을 보고 싶단 문장으로 완성되는 걸 보게 된다. 미안함, 안타까움, 후회 등으로 몸부림치는 성준.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자신을 보지 않는 성준을 외롭게 계속 바라봐온 은홍! 성준이 한 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옆에 있어준 은홍! 그리고... 성준이 위험해보여 조심하라고 소리치느라 자신에게 다가오는 차는 보지 못하고 성준대신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린 은홍!

매일 봐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 자락도 보지 못했던 성준은 은홍이 떠나버린 순간 은홍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은홍이 자신을 부르는 듯 해 따라간 곳은 지금은 흰색 페인트로 그려져 있는 은홍의 사고 지점. 은홍이 누워있었던 모양 그대로 누는 성준에게 은홍에게서 문자가 온다. "생일 축하해요! 바쁘면 못 볼까봐 미리 예약문자 보내는 건데, 성준씨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이 쪽 나였으면 해요. 죽는 날까지...."

## 1. 어느 도로 (아침)

작은 뒷산을 배경으로 주택가와 큰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그 사이를 걸어가는 성준(남, 38)  
잘 다려진 셔츠... 스포츠머리.... 바른 자세.  
하지만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하고! 귀에 손대는 성준.  
아니다 싶어 곧 걷다가 기우뚱하며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바닥으로 서류가 떨어진다.  
성준, 도로 안쪽으로 흩어진 서류들을 줍는데 어디선가 또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 어딘가를 향해 가느라 바쁘고.....  
소리가 난 건지 아닌지 구분이 안가 뒤돌아보는 성준.  
왠지 이상한 느낌에 주위를 살펴보는데  
끼이익 브레이크 밟는 소리.... 어디선가 “어서 피해요!” 하는 외침과 함께....  
성준을 스치며 확! 지나가는 덤프트럭.

성준의 놀란 눈, 충격을 삭히느라 부르르 떨리는데  
이때, 길 반대쪽에서 누군가를 둘러싸며 우르르 모여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틈 사이로 가냘픈 팔이 툭 떨어진다.  
그 손이 약지에 낀 반지가 보이고  
휘청이는 성준의 약지에서 반짝이는, 같은 반지  
핏물이 바닥을 타고 천천히 흘러나온다.....

실감이 나지 않는 듯 멍하니 바라보는 성준의 눈앞에서  
철컹하고 닫히는 화장로 문.

## 2. 화장터 화로 / 비전 (낮)

화르르르 타오르는 불꽃  
타닥타닥 마지막 소리와 함께 불꽃에 휩싸이는 관  
아른거리는 열기 속에 서서히 가루로 내려앉고  
분골된 뼈, 몸짓을 하듯 너울너울 하늘로 날아오르다가  
허공으로 뿌러지며 쓰여지는 글자

## 너 없는 우리

글자들 다시 흩어져, 누군가의 옆모습을 그리려다가  
잘 안 되는 지 여러 번 그려졌다 지워졌다.... 허공을 헤맨다.  
그러다 어느 순간 힘없이 후두둑 쏟아져 내리며  
분골함으로 빨려 들어가고

### 3. 동 현관 앞 (낮, 그러나 비)

분골함을 든 성준. 지친, 하지만 별 감정 없는 표정!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본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에 섞여  
누군가를 잃은 사람들의 슬픈 흐느낌이 배경음악처럼 가느다랗게 들리지만  
성준은 이제 뭐해야하나 하는 심정으로 덤덤하게 서 있다.  
이때, 어디선가 들리는 휴대폰 메시지음.  
성준, 자기 휴대폰을 들어보지만 수신된 메시지는 없다.  
메시지음이 또 들리고.... 이상하다 싶어 다시 보지만 여전히 조용한 휴대폰  
퍼뜩 스쳐가는 생각. 은홍의 유품봉투에 눈길이 가는 성준  
그 안에서 은홍의 휴대폰을 찾아낸다.  
핏자국이 남은 휴대폰. 뭔가 섬뜩한 기분.  
메시지 알림불빛이 깜빡거린다.

문자 (자막) 살아있니? 날 잊어버릴 만큼 행복해?  
성준 (어이없는) .... 뭐야!

누가 보냈나 확인하는 성준, 문자의 발신자번호가 없다.  
찼찼하게 보고 있다 휴대폰 끄는데  
성준모, 다가와 분골함을 만지며

성준모 비가 와서 어찌니  
성준 일기 예보 뭐래요?  
성준모 태풍 온덴다.

이때, 누군가 성준을 바라보는 서늘한 시선.  
돌아보면, 울어서 통통 부은 얼굴의 은소(여, 28세)와 눈 마주치고

성준 처제! (하는데)

성준에게 쏜던 원망어린 눈길을 거둬가는 은소. 고개 돌려 외면한다.  
노란 레인코트 입고 사람들 틈에 서있는 은소.  
은홍모를 부축하며 서있다.  
성준모, 은홍모에게 공손히 눈인사하고 분골함보며

성준모 (짴한) 우리 집에 올 때도 조용하더니.... 간단 말도 없이....  
성준 엄만.  
성준모 선산으로 가.  
성준 (약간 짜증) ...왜  
성준모 하나 밖에 없는 며느리다. 당연히 가야지.

추적추적 내리던 빗줄기, 점점 강해진다.

성준      오늘은 안 되겠는데...

성준모    홍제동으로 가자. 쉬고 내일 출발해

성준      됐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해.

성준모    은홍이 혼백하고 둘이 가서 어쩔려 그래. 개가 너두 데려 가겠다  
            그러면...

성준      (피식 웃는) 물귀신이야? 그런 게 어딴어. 회사일 처리할 거 있어, 가야 돼요.

이때, 서있는 성준모와 성준 앞으로 와서 서는 차  
훈철(남, 38세) 열린 차창으로

훈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같이 있을게요.

다가가는 성준, 차에 타려다 돌아보면  
은소와 은홍부,모. 어느새 사라지고 없다.  
성준 차에 타자, 비 들치던 창문이 빠르게 닫히며

#### 4. 화장터 근처 도로 /차안 (오후)

쉴 새 없이 비를 닦아내는 와이퍼. 눈 감고 있는 성준  
창밖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빗물과 함께 일렁인다.  
그 사이로 노란 레인코트 입고 걸어가는 은소  
훈철, 인과 때문에 잠시 서 있는데, 은소가 다가와  
유리창을 푹푹 두드린다.  
유리창 내려가고 성준 돌아보는데  
뒷자리에 놓인 분골함과 그 옆의 영정사진을 보는 은소.  
은소와 닮은 은홍(여, 30)의 차분한 얼굴이 보인다.

은소      이제 만족해요?

성준      처제, 그게 무슨 소리야!

은소      형부잖아요, 언닐 이렇게 만든 거.

성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은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나요?

성준      타! 데려다 줄게. 가면서 얘기하자.

은소      싫어요.

성준      타! 얘기 좀 해.

은소      (고개 젓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이때, 뒤에서 뱅뱅하고 경적이 울리면,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차.  
성준, 창백한 얼굴로 은소를 돌아보고  
백미러에 잡히는 은소, 점점 작아진다.

훈철      신경 쓰지 마. 갑자기 일어난 사고라 믿어지지 않아서 그럴 거야.

성준      정말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훈철      누군가라도 원망하고 싶겠지.

성준      그런 거라면 다행이고.

훈철      (미러로 은소보며) 은홍씨 동생, 은홍씨 많이 닮았네. 그 때 은홍씨 참 예뻐했는데...

성준      (의아) 그 때?

훈철      너 그때부터 은홍씨 알던 거 아니었어? 회사에도 찾아온 적 있잖아

금시초문이라는 듯 돌아보는 성준.  
비가 세차지는지 와이퍼가 부지런히 빗물을 닦아낸다.

와이퍼 소리에 비행기 소리 겹쳐지고.

## 5. 청주 국제공항 활주로 (회상, 해질 무렵)

먹구름 가득한 하늘로 날아가는 비행기  
공항 내 안내방송과 사람들 소리로 바뀌며

## 6. 청도 공항 게이트 앞 로비 (이른 저녁)

깨끗하게 다려진 하얀 제복에 자신 있고 반듯한 걸음으로 걸어 나오는 남자.  
제복입고, 기장과 함께 나오는 성준이다.  
지금과는 많이 다른 인상. 여유 있고, 부드러운 표정.

기장      김부기장, 오늘 좀 긴장했지?

성준      예, 좀.

기장      비행기 탄 지 얼마 안됐는데... 그만하면 잘했어.  
내가 그만 할 땐, 말은 안했지만 어찌나 오금이 저리던지  
엄마! 하고 부르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다니깐....

성준      (씩 웃으며) 감사합니다.

성준, 반대편에서 오는 훈철과 눈인사하고.  
훈철도 성준과 같은 부기장견장을 달고 있다.  
이때, 반대편 탑승객 게이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승객들.  
그 사이에 배낭매고 나오는 은홍, 작고 귀여운 인상.  
하지만 얼굴이 좀 상해있다.  
처음 와보는 지, 낮선 풍경에 시선을 여기저기 옮기며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출입구로 부지런히 걸어간다.  
성준과 은홍, 두 사람 스쳐지나가고....

## 7. 동 현관 앞 (저녁)

내리는 비를 보고 있는 은홍.

막 자른 듯 아주 짧은 커트 머리에 커다란 배낭  
배낭에서 소형녹음기를 꺼내 녹음하기 시작한다.

은홍     2002년 9월 청도공항. 비가 내립니다.  
          계속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얼굴이 들키지 않게....

말하면서 눈이 점점 빨개지자  
은홍, 녹음기 넣고, 노란 레인코트 걸쳐 입고  
당차게 빗속으로 들어간다. 후드는 쓰지 않은 채.  
좀 떨어진 곳에서 우산 쓰고 지나가는 성준,  
머리는 비를 맞고, 레인코트는 입고, 혼자 중얼거리며 가는 은홍이 엉뚱해서  
한 번 돌아본다.  
통통통통 발로 물 튀기며 걸어가는 은홍

## 8. 어느 게스트하우스 (저녁)

레인코트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벗어서 베란다 옷걸이에 걸고 침대위에 쓰러지는 은홍.  
5-6인이 사용하게 되어있는 좁은 도미토리룸  
딱 한 사람 누우면 끝인 공간이 은홍에게 주어진 전부다.  
아래층에선 파티가 열리는 지 떠들썩한데....  
배낭을 베고 그대로 잠드는 은홍.  
쫄그리고 자는 은홍의 눈가에 마른 눈물 자국

## 9. 동 아래층 (아침)

그 눈이 다시 떠진다.  
다크 서클이 드리워진 은홍의 눈이 거울에 비치고  
빠근한지 어깨를 주물러보는 은홍 앞으로 토스트와 야채샐러드가 놓이고.  
카페처럼 꾸며진 실내. 작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입맛이 없는 은홍, 접시만 보고 있다.  
옆 테이블에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인지 떠들며 식사하고.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도 너무 잘 어울려 즐겁다.  
그들을 물끄러미 보다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게 되고  
찌죄죄한 좀비같은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온다.  
결심한 듯 토스트를 입에 막 투하하는 은홍.  
은홍의 터질 것 같은 볼을 보며 웃는 여행객에게 손 흔들어주는 은홍

## 10. 동 2층 방 (아침)

털털털.... 수건으로 젖은 머리 털며 들어오는 은홍, 말끔한 얼굴  
짐을 챙기고, 방을 정리하고, 레인코트를 접어 배낭에 넣는다.  
나갈 준비를 마친 은홍. 창문을 짹 열면

간밤의 비에 씻겨 맑은 하늘, 나무 그리고 골목 안 풍경  
심호흡하는 은홍.

은홍 (허공을 향해)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내는 은홍.  
고등학생 여럿이 함께 뒤엎켜 웃으며 찍은 사진.  
찢으려다가 창가에 기대놓고 그대로 문을 나선다.  
남겨진 사진 속.... 남겨진 사람들...  
창문턱에서 바람에 까딱까딱하다가 휘릭 날아간다.

## 11. 근처 거리 (아침)

날아가는 풍선을 잡으려고 애쓰는 꼬마.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던 은홍, 꼬마의 안쓰러운 얼굴을 보고...  
나뭇가지에 걸린 풍선을 잡으려고 손을 뻗지만 닿지 않는다.  
여러 번 폴짝폴짝 뛰어 겨우 잡아내는 은홍.  
꼬마의 손에 풍선을 쥐어주면

꼬마 세세!  
은홍 (중국말 할 줄 몰라서) 어... 그래.. 이제 놓치지 마라.

꼬마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일어나는 은홍.  
어깨를 펴고 걷는다. 한결 가벼워진 얼굴이다.  
지도를 열심히 들여다보지만 잘 모르겠고  
그래도 무작정 걷는다.

## 12. 어느 재래시장 (오전)

이것저것 구경하는 은홍.  
갖가지 물건이 즐비하고, 곤충튀김이 그득한 가판 앞에 서는 은홍.  
맛있게 먹는 중국인을 쳐다보다가 호기심에 귀뚜라미 튀김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튀김을 들고 골목 안쪽으로 돌아가는 은홍.  
눈을 찡그리고 다리를 하나 툭 따서 먹어보고

은홍 (눈을 번쩍 뜨며) 어? 고소한데....

한 입에 먹으려고 하다가 귀뚜라미 눈과 마주치자  
도저히 눈 뜨고는 못 먹겠고  
눈을 질끈 감은 채 한입에 몰아넣는 은홍.

다 먹은 튀김 꼬치를 들고 이것저것 구경하며 돌아다니다  
작은 골목 안으로 들어간다.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다니며, 신기하게 구경하는 사이  
어느 틈엔가 너무 낮은 거리로 와버린 은홍.  
당황한 은홍, 사전 꺼내 떠듬떠듬 말로 중국말로 묻지만  
모르겠다는 듯 절레절레 고개 젓는 사람들  
목덜미를 타고 땀이 흘러내린다.

### 13. 몽타주 (낮)

이 골목으로 들어가 보고/  
저 골목으로 나와 보고/  
사람들에게 말 걸어보지만 통하지 않는/  
걸다보면 다시 같은 곳에 와 있고/  
헤매느라 지친 은홍의 시야가 흐려지고..... 짹짹 내리쬐는 햇빛....

### 14. 근처 거리 (오후)

손으로 햇빛가리며 쥘그리는 성준.  
걸어 올린 와이셔츠에 땀이 맺힌다.  
손수건으로 땀 닦다가 대추 대야를 앞에 놓고 앉아있는 좌판소녀에게 다가간다.  
소녀, 대추를 가리키며 담으려고 하면  
아니라고 손을 저으며 소녀가 부치고 있던 부채를 가리키는 성준  
안된다고 고개 흔드는 소녀, 몇 번 더 흥정이 오가고  
결국 부채 들고 오는 성준.  
훈철, 젖다는 듯 고개 절레절레 저으며

훈철     벼룩이 간을 빼먹냐  
성준     내가 뭘? 공짜로 뺏아온 것도 아니고! 팔려고 나왔으니 뭐라도  
           팔면 좋은 거지. (부채 부치며) 아 시원하다!

두 사람, 걷기 시작하고  
상점에 걸린 물건들을 유심히 보며 걷는 훈철

성준     선물을 뭐 이런 데서 사. 명품 가방 정돈 돼야 되지 않아?  
훈철     명품도 한 두 번이지, 벼룩 잘못들이면 평생 고생이다.  
성준     재수씨가 넘어가 줄까  
훈철     형수님이다!

이때, 한 쪽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  
그냥 지나쳐 가려는데 간간이 ‘한귀런’이란 소리도 들리고  
돌아보면 쓰러져있는 은홍.  
뛰어가는 성준, 사람들을 헤치고 다가가

성준     이봐요... 이봐요. 정신차려 봐요.



은홍 (힘겹게 눈 뜨는)  
성준 한국인이예요?  
은홍 (의식이 가물거리는).... 저.... 어....어지러워요....

손수건을 꺼내는 성준.  
누군가가 건네는 물을 받아 수건에 적셔 은홍을 덮어보지만  
얼굴만 겨우 가릴 뿐, 너무 작다.  
자신의 셔츠에 눈길이 가자 급하게 벗는 성준.  
은홍을 물에 적신 셔츠로 덮어 안고 일어서는

성준 (중국어) 여기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죠?

그대로 뛰는 성준.

훈철 성준아! 119, 119 불러  
성준 (못 듣고 가는)  
훈철 (주저하다) 야! 같이 가! (할 수 없이 따라가는)

## 15. 어느 병원 응급실 복도 (해질 무렵)

응급실 앞 의자에 앉는 성준.  
땀으로 범벅된 상체에 젖은 셔츠를 대강 입는다.  
언제 떨어졌는지 셔츠엔 단추가 두 개나 없고  
훈철, 음료수 캔 내밀고 옆에 앉으며

훈철 그렇게 무작정 안고 뛰면 어떡해.  
성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어.  
훈철 덕분에 나까지 땀으로 목욕 했네.  
성준 넌 걸어왔잖아, 인마  
훈철 빨리 걸었거든.  
성준 게을러빠진 놈.  
훈철 너야 말로, 이렇게 무식한 놈 인줄 처음 알았다. 119를 불렀어야지.  
머린 났다 얻다 쓸라구.  
성준 (피식 웃는)  
훈철 깨어나려면 좀 더 있어야 되나?  
성준 (일어나며) 누구 하난 남아있어야 될 거 같은데 니가 있어라.  
훈철 왜 같이 있다 가지.  
성준 오다가 열쇠고리 흘린 거 같아, 왔던 길로 다시 가봐야겠어.

훈철, 어정쩡하게 있는 사이, 성준 밖으로 나가는데

간호사 (중국어) 보호자분! 방금 오신 환자 보호자분!  
훈철 (중국어) 네! 네!

## 16. 동 응급실 안 (해질 무렵)

여러 환자들로 가득한 응급실안  
 훈철, 간호사를 따라 커튼이 쳐진 침대 옆으로 다가가면  
 막 정신이 들어 힘없이 바라보는 은홍  
 훈철 은홍에게 웃어주며

훈철     걱정 말아요. 이제 살았어요.  
 은홍     고...고맙습니다....  
 훈철     여행 온 거죠?  
 은홍     (끄덕끄덕)  
 훈철     중국어 잘 못하는 거 같던데, 누구... 같이 온 사람 있어요?  
 은홍     (고개 젓는)  
 훈철     갈 데는?  
 은홍     발 닿는 데로 가려고.....  
 훈철     무작정 왔다? 대책 없는 아가씨군.  
 은홍     그건 아니구요.... 저 혼자 걷는데 익숙해지려구요. 앞으로 쪽 혼자  
 가야하니까  
 훈철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혼자가기 뭘 혼자 갑니까? 뭘 일인지 모르겠  
 지만 툭툭 털어버리고 잘 살면 돼요.  
 은홍     (빙그레 웃는)  
 훈철     내일도, 발 닿는 데로 가는 거 빼고 계획 없죠?

## 17. 성준의 호텔 (아침)

훈철     (F) 땀 계획 있냐? 없지!

성준, 침대에 누워, 눈도 못 뜨고 전화 받고 있는

성준     (피곤한) 내가 왜.....  
 훈철     (F) 갑자기 비행 스케줄이 바뀐 걸 어떡해  
 성준     그 여자가 또 만나 재?  
 훈철     (F) 내가 보자 그랬어. 혼자 봐두기도 불안하고, 나도 시간 여유  
 있는 줄 알고.  
 성준     (머리 헝클며) 어우...

통화 끝나자 휴대폰 내던지는 성준.  
 할 수 없이 일어나 욕실로 들어가고.  
 거칠게 샤워꼭지 트는 성준. 물줄기가 쏟아진다.

## 18. 성준의 집 앞 / 차 안 (현재)

빗줄기도 더욱 강해지고  
휙 듯 휘청거리는 나뭇가지들.

성준 그 여자가 은홍이었어?

훈철 둔한 놈! 너 결혼한다고 데려왔을 때 딱 보니까 알겠더라. 그때  
만나서 사귀는 거 아니었어?

성준 딴 사람 같았는데..... 그때 그 여잔 짧은 머리였잖아.....

훈철 (어이없어 웃는) 머리 자르면 못 알아보냐. (고개 끄덕이며) 여자 못  
사귀는 덴 다 이유가 있지.

아파트 정문을 지나쳐 들어가는 차

## 19. 동 지하 주차장

차에서 내리는 성준, 훈철도 따라 가려고 하면

성준 그냥 가.

훈철 왜... 술이나 한잔 해.

성준 됐다. 쉬고 싶어.

훈철 쉬어 그럼, 난 옆에서 한잔 할 테니까

성준 불안하냐, 내가 뭘 짓 할까봐?

훈철 (성준 보며)

성준 우리 보기보다 미미하게 살았어. 그냥 좀 쉬고,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야.

훈철 (성준 표정 보고는) 알았다. 늦게라도 생각나면 전화해.

주차장 밖으로 나가는 훈철

성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 20. 성준의 아파트 안 (이른 저녁)

철컹! 열리는 문

주인 잃은 슬리퍼가 현관에 놓여있다.

은홍이 그냥 잠깐 시장간 듯 너무 일상적인 공간,

앞치마며 화분까지도 여느 날처럼 그대로이고...

들어와 소파에 무너지듯 앉는 성준

현관의 센서 등이 꺼지자 어두워지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성준.

눈이 어둠에 점점 익어가고,

조금 열린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다가가면 베란다 문이 열려있고,

그 바깥에 날다가 만 빨래가 바람을 맞으며 그대로 있다.

남은 빨래를 너는 성준.  
빨래들과 함께 널려있는 백 원짜리 동전 두 개.  
어이없다 싶어 만져보다 그 옆에 같이 널린 은홍의 미술학원 수강증을 본다.  
구겨진 은홍의 얼굴.  
빨래대 옆에 화분엔 배추가 정중하게 심겨져있다.  
웃어야 되는데 웃음이 안나오고....  
배추 화분 바라보며 담배 한 대 피우는 성준

문 닫고 들어오는 뒤로 커튼이 훑날리고.  
커튼 뒤로 보였다 사라졌다하는 비행기 모형들과 액자  
은홍과 정장입고 찍은 약혼식 사진이다.  
그 사진 속 성준의 시절로 되돌아가며

성준 (Na) 우리가 다시 만난 게 그 때가 아니었다면 우린 다르게  
살았을까? 아니.... 그 때가 첫 만남이 아니었던 걸 알기만 했더라도  
다르지 않았을까....

## 21. 00항공 기지내 의료원 복도 (회상, 오후)

사진에서와 같은 옷 입고 걸어가는 성준,  
의료원 자동문이 열리며 훈철이 나온다.

훈철 (성준을 발견하고) 어이, 지각생! 빨리빨리 못 오지 이거.  
성준 어쭈, 내가 너 같이 빈둥빈둥 노는 줄 알아?  
훈철 머리도 나쁜 게 일까지 열심히 하면 완전 민폐라는 거 모르냐?  
성준 (웃으며) 그건 그렇지, 내가 그런 애들 망친 것까지 커버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훈철 (졌다는 듯 피식 웃으며 나지막이) 오늘은 바쁘더라도 끝나고  
시간 좀 내라.  
성준 (잘 안 들린다)어? (돌아서며) 뭐라고?  
훈철 가는 귀 먹었냐? 뭘 말을 못 알아들어. 소개팅 하라구.  
우리 마누라친구가 하도 졸라서.... 총각이라고 너밖에 없잖아.  
성준 마닐라에 친구 있어?  
훈철 (어이없는)귀 먹은 거 확실하네. 여기 사오정 하나 추가요.

이때 ‘김성준씨’ 부르는 소리 들리고

성준 검사받고 나와서 얘기하자. 30분 후에 로비에서 기다려.

성준, 서둘러 들어간다.

## 22. 동 의료원 내 청음 검사실 (오후)

검진복을 입은 성준 청력 검사 중이다.  
앞에 놓인 모니터의 버튼을 누르는 성준.  
성준의 2m 뒤쪽에서 청력기를 작동하던 의사, 고개를 갸웃하며

의사      김성준씨, 들리면 버튼 누르세요.  
성준      네. (하며 가만있는)

의사, 한 번 더 작동하지만 성준, 평상시 얼굴이고,  
다시 한 번 작동하면 버튼 누르는 성준  
차트 들고 성준에게 다가오는 의사

의사      (심각하게) 김성준씨, 오른쪽 귀로 소리 잘 안 들리죠.  
성준      아뇨.  
의사      지금 60db을 구분 못하고 있는데요.  
성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      (소형 청력기를 성준의 왼쪽 귀에 대고) 들려요?  
성준      .....네.  
의사      (다시 대보며) 이걸요.  
성준      (눈빛 흔들리며) 들립니다.  
의사      우측 청력이 기준 이하입니다. 조종은 불가능해요.  
성준      (낮빛 굳으며) 들려요. 들린다니까요.  
의사      좀 전엔 안 들려야 정상입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멍하니 앉아있는 성준.  
의사, 결과서에 사인하려는데

성준      다시 한 번 측정해주십시오.  
의사      김성준씨는 몰랐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세 번 이상 측정했습니다.  
            확실해요.  
성준      (중얼거리는) 다시.... 해...주십시오. 조종사.... 조종사가 되려고  
            십년을... 노력했습니다!

의사, 안타까운 얼굴로 지켜보다가 나가면  
중얼거리다, 점점 커지는 성준의 목소리

성준      다시... 다시 해주세요. 선생님. (절규) 들립니다. 들려요.  
            들릴 겁니다!!!

## 23. 동 항공기지 로비 2층 (오후)

훈철      (F) 김성준, 내말 들려? 너 어디야

로비가 보이는 2층 난간에 기대 서 있는 성준  
 훈철의 뒷모습을 보며 무표정하게 서있다.  
 오른쪽 귀에 휴대폰 대고 있다가 왼쪽 귀에 댔다가  
 다시 오른쪽 귀에 대며 절망스러운 눈으로 말없이 귀에 대고만 있다.  
 전화기에 대고 계속 부르다가 아무반응 없자 전화 끊고 다시 걸어보는 훈철  
 울리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그대로 있는 성준.  
 그런 성준을 이상하게 쳐다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훈철 전화 끊고 ‘김성준!’ 몇 번 부르다 나가고  
 초점 없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성준, 주먹으로 기둥을 내리친다.

## 24. 동 성준의 집 (밤)

기둥이 샌드백으로 변하고.....  
 성준의 깔끔한 방에 달려있는 샌드백을  
 Y셔츠에 정장바지 입은 그대로 두들기는 성준.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탈진이 될 때까지 무자비하게 두들기는.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고.

한쪽 벽면 모두를 차지한 비행기 모형들을 쓸어내 던지다가  
 옷걸이에 걸린 조종사 제복이 눈에 들어온다.  
 어깨 견장을 어루만지는 성준,  
 부조종사임을 알려주는 노란 줄을 하나하나 만져보다가..... 복 뜯어내고.  
 무너지듯 벽에 기대앉는 성준,  
 견장 권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좌절에 찬 비명을 질러댄다.  
 비명에 섞여 전화 벨소리가 울리며

## 25. 동 사무실 (오후)

안 들리는지 왼손으로 전화기 바꿔드는 성준  
 웃음기 없어진 상한 얼굴  
 ‘대리 김성준’이라 쓰인 이름표가 성준의 가슴에 달려있고  
 책상에 앉아 지상근무 중이다.  
 조종사복 입고 들어오는 동료  
 본능적으로 어깨의 견장이 눈에 들어오자, 굳은 표정으로 외면하며

성준      글썽 싫다고. (사이) 엄마! 내가 싫다는데 왜! (지친) 알았어.  
             어디로 가면 돼 (사이) 뭐? 여기로 와? (버럭) 여자를 직장으로  
             보내는 경우가 어딴어!

성준, 전화기 거칠게 놓고 나간다.

## 26. 동 로비 옆 커피숍 (오후)

두리번거리는 성준.

드문드문 앉아있는 사람들. 근무시간 중이라 직원들은 많지 않다.

외부 손님을 맞는 사람이 몇몇 있을 뿐

아직 여자는 안 온 듯, 눈에 띄는 사람이 없다.

성준, 의자에 앉아 냉수를 들이키는데

입구에 주춤거리며 어색하게 들어오는 은홍. 긴 머리, 스커트 차림.

누군가를 찾는 듯 돌아보다 성준과 눈이 마주친다.

성준     나 찾아왔어요?

은홍     (목례하며)....네

은홍, 다가오는데 벌써 일어나는 성준, 은홍의 손목을 낚아채 나가며

성준     (낮게 협박하듯) 아무 말 말고 나가서 얘기하죠. 사람들 눈이  
          있으니...

얼굴에 따라 나가는 은홍

## 27. 어느 바 (밤)

들어오는 성준 자리에 앉는다.

혼자 주문하고.... 아무 말도 안하는 성준.

맞은편에 앉은 은홍, 마음이 불편하다.

위스키와 안주가 나오고.... 얼음도 없이 스트레이트로 거푸 잔을 비우는 성준

은홍     그렇게 급하게 드시면 안 좋은데...

성준     (은홍의 빈 잔을 보고) 아! (따라주고) 마세요.

은홍     (걱정스러운)

(시간 경과)

너무 마신 성준, 몸도 가누기 힘들다.

그 앞에 앉아있는 은홍, 조용히 바라만 보는데

성준 일어나다 비틀거리면 은홍 성준의 팔을 잡아준다.

은홍에게 잡힌 팔을 보다가 탁 하고 벽으로 은홍을 미는 성준

성준의 입김이 은홍에게까지 와서 닿고.

당황한 은홍, 어색해 고개 돌려 밑을 보는데

손으로 은홍의 턱을 들어 자신의 시선과 맞추는 성준.

은홍, 약간 겁먹은 눈

성준     못할 것도 없지, 결혼..... 할래요?

은홍 (큰 눈이 더 커지며) 네?  
성준 싫어?

## 28. 은홍의 집 거실 (저녁)

은홍부 (은근히 기쁜) 싫지 않으면 이제 결혼할 때도 됐고 하니...  
은홍모 그래, 그만하면 너 고생 안 시키고 무던하겠더라.

오래된 주택가 2층 거실  
창가의 나무를 낚아서 닳아있고, 천장 벽을 타고 얼룩이 번져있다.  
네 사람이 살기엔 약간 비좁다 싶은 실내  
은홍부, 뜨뜻미지근한 은홍의 표정을 보고 찌푸리고  
은홍모, 은홍의 눈치를 보며 조바심 내는데  
무릎 세우고 앉아서 듣고만 있는 은홍  
이때, 방문 열고 나오는 은소

은소 난 반대야. 쌀 삼백 섬에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언니 팔아서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구?  
은홍부 저것이! 언니 결혼시킨다구 우리가 떼부자된다든?  
은소 그럼, 왜 그렇게 해치우지 못해서 난런데?  
은홍모 해치우긴 누가.... 할 만한지 어떤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냐.  
은홍 .....

## 29. 은홍 방 (밤)

은소 하지 마!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결혼이잖아.

은소의 얘기를 듣는 건지 아닌 건지,  
작은 창문에 턱 괴고 앉아 밖만 바라보고 있는 은홍  
창문 옆에까지 가지를 뻗고 있는 사과나무가 있다.  
은홍 손을 내밀어 빨갭게 익은 사과 하나를 따고.

은홍 (은소에게 내밀며) 먹을래?  
은소 그게 중요해 지금?  
은홍 (열게 웃는)....  
은소 하지 말래니깐, 결혼!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안할 거야.  
은홍 그렇게 간단한 게 아냐.

은소, 이해 못하겠단 얼굴로 은홍을 바라보고  
은홍, 은소가 사과엔 눈길도 주지 않자 옷에 쓱쓱 닦아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은홍 사과가 무슨 과 인지 알아?



은소 (어이없다) 뜬금없이 뭐야.  
 은홍 모르지? 장미과 다.  
 은소 진짜? 에이 설마.  
 은홍 맞아. 사과, 가시도 없고, 빨강고, 요염한 꽃도 피우지 않는데  
 뭐가 닮아서 같은 팔까?  
 은소 안보여서 그렇지 비슷한 부분이 있나부지  
 은홍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다 다르게 보이지만 어딘가 같은 부분들이  
 있을 거야.  
 은소 그래서, 그 남자와 언니가 같은 과란 얘기야?

은홍, 대답 안하고 다시 사과나무를 향해 시선 돌리는데  
 은소, 책상에서 나침반이 달린 열쇠고리와 손수건에 곱게 쓴 단추 두개를 발견하고

은소 (들어보며) 이거 누구 꺼야? 남자 손수건이잖아.  
 은홍 돌려주고 싶었는데.... 돌려주기 싫어진 사람  
 은소 왜?  
 은홍 나를 기억 못해. 혼자 간직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은소 좋아하는 구나! (은홍을 빤히 보며) 그럼 그 남자랑 결혼해!  
 은홍 .....날 안 좋아하는데두?  
 은소 그래서 핏김에 탄 남자와 결혼하려는 거야?

대답 않고 다 먹은 사과 갈비에서 씨 골라내는 은홍.  
 은소 옷걸이에 걸린 아름다운 재즈댄스 복을 내려 몸에 대고 거울에 비춰보며

은소 언니 요즘 춤 잘 안 추던데 이거 나 빌려주면 안 돼?  
 은홍 왜, 배우게?  
 은소 응. 언니 춤 출 때보면 여자인 나도 반하겠더라.  
 은홍 너 가져. 난 이제 별로 안 입을 거 같아.  
 은소 정말?

옷 대고 이리저리 스텝 밟아보는 은소.  
 은홍, 추억을 떠올리며 웃음 띠고 바라보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은홍 같이 잘래?  
 은소 (씩 웃으며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좋지.

은홍, 잠옷으로 갈아입고 “먼저 씻어” 하는데 이미 눈감고 널브러진 은소  
 은홍, 큰 불 꺼주고 씻을 준비해서 나간다.

### 30. 동 거실 (밤)

화장실 들어가려는데 살짝 열린 안방에서 한숨 소리가 들린다.  
 은홍 다가가 듣는.

은홍부 은홍이 보내면 이 집도 내놓고 좀 줄여서 월세로 가자구.  
 은홍모 집도 빼자구요?  
 은홍부 고향후배가 카센터 낸다는데 같이 동업하자고 해서...  
 은홍모 그렇다고 전세보증금을 빼요?  
 은홍부 여보,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은홍모 은홍이 생각도 아직 모르겠는데...  
 은홍부 싫다는 거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당신.  
 은홍모 썩 내켜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은홍부 결혼이 별건가. 당신은 나 죽고 못 살아서 시집왔어?

은홍모 일어나 이불 펴는 소리가 들리자  
 발소리 날까 싶어 조심조심 돌아가는 은홍

### 31. 은홍 방 (밤)

어두운 방안에 눈 뜨고 있는 은홍.  
 은소 등 돌리고 있고.

은홍 은소야..... 자니?  
 은소 .....

작은 스탠드 켜고 책상 앞에 앉는 은홍.  
 은홍이 먹고 골라놓은 사과 씨가 있다.

은홍 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같지? (사과 씨 만지며) 언니  
 사과 씨처럼 살 거야. 딸기는 먹다보면 씨까지 다 먹어치우잖아.  
 참외는 골라내기 귀찮아서 그냥 씨까지 먹기도 하고. 근데 사과 씨는  
 웬만하면 안 먹혀. (흰 손수건 펼쳐 단추 옆에 사과 씨 놓으며)  
 씨는 꿈이고 미래니까..... 기다릴 거야, 썩 트고 열매 맺을 때  
 까지...

은홍, 나침반이 달린 열쇠고리를 어루만지며, 소형 녹음기 꺼내 녹음한다.

은홍 2005년 4월 9일. 은소야! 지금은 언닐 이해 못해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넌, 꼭 널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

### 32. 은소 방 (현재, 밤)

녹음기 들고 있는 은소.

은소 (혼잣말) 뭘? 내가 뭘 알게 되는데. 그렇게 어이없이 가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 온 거야?

낡은 녹음기를 자꾸 돌려듣는 은소.  
그 옆에 놓인 은홍과 찍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전화하는

은소      형부, 아직 출발 안했죠?  
성준      (F) 어, 집이야. 내일 일찍 가려고  
은소      언니 분골함. 저 주시면 안돼요?  
성준      (F) 그게 무슨 소리야.  
은소      형부에게서 그만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요.

### 33. 성준의 아파트 (밤)

성준      (당황스런) 언니가 그래? 나한테 갇혀 살았다고?  
은소      (F) 언니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성준  
냉장고를 열어 맥주 캔을 꺼낸다.  
캔 뚜껑 따 한 번에 마셔버리는 성준

성준      (기가 막히는) 언닌 언제나 나완 다른 세계에서 살았어.  
벗어나고 싶은 건 나였다고.

휴지통으로 빈 캔 던지는 성준, 창밖 소리 나며

### 34. 결혼식장 앞 (회상, 낮)

챙챙챙- 소리를 내며 매달려오는 캔들.  
깡통과 풍선으로 장식된 웨딩 카, 결혼식장 입구에 선다.  
식 끝내고 나오는 신랑신부  
담담한 성준, 은홍도 조용하고  
은홍부 혼자 신나서 몇 잔 걸친 듯 이미 별정계 달아오른 얼굴로  
만면에 흐뭇한 미소를 띠며 서있다.  
멀찍이 서서 바라보는 은소.  
풍선으로 장식된 신혼 차에 다가가는 두 사람.  
마지막으로 하객들에게 인사하다 은소와 눈이 마주친다.

은홍      (성준의 팔을 쿡 찌르는) 웃어요.  
성준      왜요?  
은홍      신랑신부가 떨떠름한 결혼식은 김새잖아요.  
성준      (어이없는) 그래서 억지로 웃으란 말입니까?  
은홍      웃으면 사진도 잘 나오는데... 이왕이면 웃는 게 건강에도 좋고  
성준      그렇게 좋으면 혼자 웃어요.  
은홍      (혼자 웃으며) 에이... 재미없다.

### 35. 호텔 (첫날 밤)

성준 (자조하듯) 재미없는 사람이란 거 모르고 결혼한 건가...

와인 따라 마시는 성준.

침대 모퉁이에 앉은 은홍, 긴장한 모습.

성준 (잔 내밀며) 목이나 축여요. 긴장 풀고....

은홍 긴장.....돼요.....

성준 왜... 처음인가?

은홍 .....

성준 ...그래?

다가오는 성준, 은홍의 뺨을 어루만진다.

더 움츠러드는 은홍, 속눈썹이 떨리는데....

성준의 손, 목 언저리를 지나 블라우스의 단추를 풀고

허리에 팔을 둘러 은홍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면

안쓰러울 정도로 오르내리는 은홍의 가슴.

마른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다급한 숨소리

성준, 은홍의 가슴 언저리에 입술을 대며.....

브래지어 어깨끈을 끌어내리는 순간

픽! 쓰러지는 은홍.

뒹야, 싶은 성준, 은홍의 뺨을 때리며

성준 이봐요, 왜 이래!

은홍 (참은 숨을 한 번에 내뿜듯) 허!

성준 놀랬잖아요.

은홍 가....가슴이 터질 거 같아서...

팽팽한 실이 툭 끊긴 듯 긴장 확 풀리는 성준

기가 막혀 은홍 보면

은홍 (심호흡하고) 10분만 쉬었다.....가요.

성준 (어이없어) 됐어요. (침대에 등 돌리고 눕는) 잡시다.

성준, 곧 고른 숨소리 내며 잠에 빠져들면

그 옆에 무릎 세우고 앉아 성준의 등을 바라보는 은홍

### 36. 어느 들판 (오전)

잠 못 잔 듯 눈 부은 은홍, 차에서 내리면

아름다운 꽃이 흐드러지게 핀 넓은 들판

사진 찍는 신혼부부들 여럿 있다.

연보라 스카프를 한 은홍, 스카프가 날아가면 주워오고 또 날아가면 또 주워오고

성준 (보다 못해) 짹 매든지, 가방에 넣지 그래요?

은홍 주워오면 되는데 왜요. 스카프는 날려줘야 맛있고, 덕분에 운동도 되는데...

성준 (이해 못하겠고)

가방에서 mp3 이어폰 꺼내는 은홍.

한 쪽은 자기 귀에 꽂고 한 쪽을 성준에게 대어주려하면

반사적으로 오른쪽 귀를 막으며 기겁해 빼는 성준

성준 (버럭) 뭐하는 짓이야?

은홍 (과민 반응에 놀라서) 노래가 좋아서.... 같이 들으려구...

성준 (너무 했다 싶어 누그러들며) 묻지도 않고 왜 맘대로 해요?

은홍 미안해요.

성준의 표정을 살피곤 슬그머니 걸을 떠나 이리저리 거니는 은홍.

마음이 불편해진 성준, 은홍에게 다가가면

은홍, 혼자서 mp3에 마이크로 녹음하며

은홍 2005년 6월 10일. 결혼한 지 이틀 째, 변한 건 별로 없습니다.

성준 뭐하는 거예요?

은홍 (놀라서 등 뒤로 mp3 숨기며) 별 거 아니에요.

성준 뭘 녹음하는 거죠?

은홍 (살짝 얼굴 붉히며) 성우.... 해보고 싶어서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 나는 대로 녹음해보는 거예요.

성준 (어이없는) 그렇게 해서 성우 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씩 웃는 은홍

이해 안되던 표정으로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성준.

### 37. 성준의 아파트 (현재, 밤-아침)

스카프, 이어폰, mp3, 다이어리 등을 꺼내 상자에 담는 성준.

은홍의 얼마 안되는 살림살이가 상자에 담긴다.

물끄러미 바라보는 성준,

mp3를 틀어봤다가 별말 없자 끈다.

그대로 담아 침대 옆에 두고 쓰러지듯 눕는 성준.

덜컹덜컹... 문 두드리듯 창문을 때리는 폭풍

단헛어도 날리던 커튼이 조금씩 잦아들며 틈새로 들어오는 여명

옷도 안 벗고 잠든 성준의 얼굴에 햇살이 비치며

### 38. 동 집 앞 (아침)

말끔하게 갠 하늘.  
성준 푸석푸석한 얼굴로 차에 물건들을 싣는다.  
성준, 차에 타고, 네비게이션을 켜는 순간  
뻑! 하고 화면이 꺼지는 네비.  
이리저리 만져보다가 한 대 꺾 치자 정상으로 돌아오는 화면.  
성준, 차를 출발시키며

### 39. 거리/차안 (회상, 오후)

운전하고 있는 성준, 어느 병원 앞에 선다.

성준 내려  
은홍 당신은요?  
성준 난 회사 들어 가봐야 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결과보고 이따  
얘기해줘. 시험관하라 그러면 한다 그래.  
은홍 (시무룩)  
성준 (좀 안 됐어서 애써 부드럽게) 당신이 좀 힘들겠지만 애가 있으면  
좀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겠어? 엄마도 손주 기다리시고.  
은홍 (말없이 보다가 문 열고)

### 40. 성준의 집 베란다 (해질 무렵)

들어오는 은홍.  
손에 들린 병원용 서류 봉투.  
허탈한 듯 꺾 한 번 웃고는 소파에 던지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은홍 네 어머니. 진단서 가져왔어요. 홍제동 갈 때 가져갈게요.

전화 끊고, 앞치마 입으며 집 정리하기 시작하는 은홍.  
빨래 건조대로 빨래를 가져가고  
덜 짜진 성준의 바지를 비틀어 짜다가 같이 빨린 천 원짜리 몇 장과  
메모지를 발견하는 은홍. 훈철의 메모지다.

훈철 (Na)오페라 초대권이 생겨서 마누라와 갈까 하는데 너도 생각 있음  
은홍씨와 같이 가자. 13일이야.

휴대폰으로 날짜 보는 은홍. 14일이다.  
아쉬운 듯 젖은 메모지 보다가  
잘 펴서 천 원짜리와 함께 빨래집게로 넣어놓는 은홍  
베란다 새시를 열어 이불을 터는데 놀이터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린다.

#### 41. 집 앞 놀이터 (저녁)

아이들 사이에서 아장거리다 쿵! 모래바닥에 넘어지는 아기.  
성준, 아기를 일으켜 세워주고 고개 들면 은홍이 서있다.

성준 (기대하는) 결과 나왔어?  
은홍 아기가 좋아요?  
성준 뭐....하나쯤은...  
은홍 (어색하게 웃으며) 어찌지? 나... 아이 못 낳아요. 시험관도 안된대요.  
성준 (충격으로 굳어지는)  
은홍 나올 수 있어도 안 나왔겠지만.....  
성준 (숨이 턱 막히고)  
은홍 잘 됐어요. 나쁜 여자보단 모자란 여자가 낫죠?  
성준 (어이없고) 너란 여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은홍 (바닥만 바라보는)

획 뒤돌아서서 성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단지 밖으로 도로 나간다.  
터덜터덜 걸어가는 성준의, 분노에 찬 얼굴이

#### 42. 고속도로 / 차안 (현재, 오전)

충혈된 눈으로 핸들 잡고 있는 지금의 얼굴로 변하며

성준 뭐? 나한테 간혀 살았다구? 내가 은홍일 이렇게 만들어? 누가 누구  
참아줬는지 모르겠네.

백미러 속으로 보이는 은홍의 영정사진을 노려보는 성준  
그 위로 들리는 라디오 방송

라디오 경부고속도로 구간구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  
나들목 2Km 지점에서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안내 표지판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 여파로...

차창 밖으로 보이는 차들, 정지화면처럼 서 있고.....  
라디오 소리에 섞여 들리는 성준의 휴대폰 벨소리.

성준 (전화 받고, 피곤과 짜증이 뒤섞인)....뭐? (라디오 볼륨 줄이며)  
아니... 아직 멀었어.

깜빡깜빡 하다 픽 꺼져버리는 네비게이션  
성준, 네비게이션을 신경질적으로 톡 치며

성준 (고개 빼서 이정표 보는) 여기? 청주 근처! (사이) 은홍이 고향?  
청주가? (무심히) 그랬나.... (사이) 옆에 있지

성준, 옆자리를 돌아보면 담담한 표정을 한 은홍의 영정사진과 분골함.

성준 (건조하게) 애도 없었는데 무슨 선산이야 그냥 가까운데..... (사이)  
(말 막듯) 알았어, 알았다구.

이때, 어디선가 휴대폰 벨소리가 또 들린다.

성준 (은홍의 유품을 뒤져 휴대폰 꺼내며) 엄마, 은홍이 핸드폰 올린다. 끊어.

전화 끊고, 은홍의 사진과 휴대폰을 바라보는 성준.  
핏자국이 남은 휴대폰. 뭔가 섬뜩한 기분.  
잠시 보다가 곧 통화버튼 누르는 찰나 전화 끊긴다.  
조금씩 가기 시작하는 차들. 성준, 따라서 서행하지만 곧 다시 정체!  
짹그리는 성준, 검은 색 넥타이를 목에서 끌어내리고....  
조금 또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청주시 진입 표지판, 성준을 내리누르듯 다가와 있다.  
동시에 두르르 울리는 문자메시지 알림음. 은홍의 휴대폰이다.  
흘끗 보는 성준

문자 (자막) 살아있니? 고향도 잊어버릴 만큼 행복해? 한 번 보고 싶다.

끼이익. 대열을 이탈해 갓길에 차 세우는 성준.  
은홍의 휴대폰을 열어보는 성준. 문자의 발신자번호가 없다.  
좀 전에 왔던 전화도 발신자 표시제한 번호라고 뜨고.  
저 앞으로 보이는 청주 나들목.  
손가락으로 핸들을 톡톡 치며 잠시 망설이던 성준의 손  
갑박이 켜고 핸들 확 꺾으며  
딱 막힌 직진 차량들 옆으로 속도를 내 빠져나간다.  
성준의 차, 톨게이트를 지나 녹음 우거진 청주 가로수 길로 들어서며

#### 43. 성준 집 주방 (회상, 저녁)

가로수 길이 데생으로 바뀐다.  
펼쳐진 데생 교본  
은홍의 손에 들린 도화지, 식탁 위에 놓이고  
초보인 듯 어설피게 데생 연필 드는 은홍  
데생 교본을 넘겨 인물이 그려진 페이지를 펴고 조심조심 선을 그어본다.  
집안은 물속처럼 고요한데,  
빼꾸기시계가 울면 돌아보는 은홍  
그 옆엔, 신경 쓴 듯한 상차림이 식탁보 안에 놓여있고.



#### 44. 동 현관 (밤)

들어오는 성준.

은홍, 현관 앞에 서서 성준을 바라본다.

뭔가 실망한 듯 미묘하게 움직이는 속눈썹

은홍 술.... 했어요?

성준 음.

은홍 밥은?

성준 먹었어.

무미건조한 얼굴로 대답하는 성준.

바로 거실 탁자에 앉아 노트북 켜고 USB를 꺼내는데

잘못해서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USB

은홍, USB 집어주려 하면

성준 손대지마, 중요한 거야.

은홍 (멈칫하고)

성준, UBS 주워서 쫓다가 노트북 밑에 깔린 걸 끄집어낸다.

빨간색 다이어리다. 들여다보는데

은홍 (보곤 얼른 와서 감추는)

성준 뭐야? 오늘 무슨 날이라고 써있는 거 같은데

은홍 (고개 숙이는)

성준 (예민해져) 뭐냐니까?

은홍 (머뭇...) 그냥... 결혼.. 기념일이라

성준 (가웃) 오늘이? 그랬나... (건성으로) 미리 얘기하지 그랬어.

은홍 당신 바쁘니까

성준 하긴....(피곤하게 얼굴 부비며) 오늘도 밤샘 거 같으니까 먼저 자.

그리곤 노트북 화면에 시선 고정하는 성준.

은홍, 성준 옆에 약물 놔주고 그대로 있으면

성준 (먹다 쩡그리며) 물에 한약 넣지 말랬지.

은홍 건강에 좋아요.

성준 좋으면 너나 먹어.

은홍 (그대로 서 있는)

성준 (신경 쓰여 쳐다보면)

은홍 그냥 있을게요.

은홍, 다이어리를 만지작거리며 서 있다.

#### 45. 상당산성 주차장 / 차안 (현재, 오전)

그 빨간색 다이어리를 집어 드는 성준

성준 (쭉쭉 넘기며) 친구 얘기도 없고.... 문잔 대체 누가 친 거야?

넘기다보니 찢어진 페이지가 보인다.

자막 보고 시.....프

<보고 싶다>라고 쓴 것 같은!

‘싫’이란 글자가 찢어져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누군가의 옆모습을 그리다 잘 안 그려진 듯

여러 번 그리고 지운 흔적

성준, ‘이건 뭐야?’ 싫어 찢! 헛웃음 치며

성준 (은홍에게 말하듯) 여기 청주에 있겠네. 네가 보고 싶단 사람이나...

널 보고 싶단 사람이나... (그러다 생각난 듯) 아...그 사람인가...

(울컥하는) 보고 싶단 게 남자였어?

#### 46. 청도 어느 거리 (회상, 오전)

다이어리에 뭔가를 적다가 하늘을 바라보는 은홍

17신 청도 이야기에 이어지는...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 지하도 옆이다.

그들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서있는 은홍.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간간이 시계 보며...

반대편에서 나타난 성준. 은홍이 어떻게 하나 벽에 기대보고 있는데

웃고 있다가 갑자기 푹! 하고 떨어지는 눈물.

당황한 성준, 뛰어나가 은홍의 팔을 잡으며

성준 왜 그래요, 또 아파요?

은홍 네?

성준 아프냐구요.

은홍 네.

성준 (급하게 두리번) 병원이 어딴지?

은홍 (잡힌 팔을 보며) 너무 세게 잡아서 아파요.

성준 (얼른 풀며) 아~!

은홍 (뻘뻘히 보며) 근데, 누구세요?

성준 발 닿는 데로 갈 거라면서요. 어제 병원에서...

은홍 (아... )

성준      같이 걸어갈 사람... 대신 나온 사람.

낮설어 하는 은홍의 손목을 잡고 가는 성준

#### 47. 청도 해변가 (낮)

건고 있는 성준, 은홍

은홍      훈철썬....

성준      왜요? 훈철이가 아니라서 실망했어요?

은홍      그건 아니지만....

은홍      바쁘시면 안 나오셔도 됐는데...

성준      (장난스레) 나도 그러고 싶었지만 이미 나온 거 돌아가는 게 더 피곤한 일이죠.

은홍      (슬쩍 웃는) 그 분은 서울로 가신 거 예요, 그럼?

성준      (시계 보며) 지금 가고 있겠네요.

은홍      구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도 못 드렸는데...

성준      (피식) 인사는 무슨.

은홍      (울컥) 왜요. 그 분 아니었음 큰 일 날 뻔 했대요.

성준      개가 그래요? 지 덕분이라고?

은홍      말씀하셔야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성준      (보다가)...알았어요. 아직 조심해야 돼요. 오늘은 살살 걸어 다닙시다. 발 닿는 데로.

저쪽에 박스 하나 갖다놓고 연 팔고 있는 노점상을 발견한 성준

성준      있어 봐요.

성준, 뛰어가 연 두 개를 사서 돌아온다.

은홍      와, 여기도 연이 있구나. 우리나라 연보다 크고 화려하네요.

성준      (연 하나 내밀며) 문어 연 할래요? 가오리 연 할래요?

은홍      문어요. 색이 멋져요.

성준      날려보면 가오리가 더 날쌔 거 같은데...

연실을 풀기 시작하는 성준.

성준      (시범보이며) 자, 이렇게 살살 실을 풀고

하는데 엉키고, 바람에 찌그러지고,

의젓하게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찌질해지는데,

성준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해보는 은홍

의외로 슬슬 바람을 잘 타고.

은홍      바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바람 위에 타보세요.  
성준      (따라하려고 허둥대는)  
은홍      제가 조정을 좀 했는데요, 물살이든 바람이든 맞서기보다 그 결을  
            타고 함께 가는 게 지름길이라구요.

하지만 이미지 구긴 성준, 잘 듣지도 않고 허둥대다  
급기야 성준의 몸이 연실에 감기고

성준      (기가 막혀 웃으며) 이거야 원..... 조종사 자격증 반납해야겠는데요.  
            요렇게 작은 날개하나 운전 못해서야.... (실로 묶인 몸 보며) 이거  
            어찌지?  
은홍      (간단하게) 끊으면 되죠. 둘 다 날려줄까요?  
성준      그게 낫겠네요.  
은홍      아, 여기다 소원 적어야겠다.  
성준      무슨 소원이요?  
은홍      꿈을 잃지 말고 가고 싶은 곳까지 날아가라구요.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연에 글씨 쓰는 은홍.  
성준도 고민하다가 ‘무사비행’ 이라고 쓰고. 실을 끊는 두 사람.  
날개를 팔랑이며 자유롭게 날아가는 연.  
까만 점이 되어 사이 좋게 사라진다.  
성준, 연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다 돌아보면  
은홍이 보이질 않고

#### 48. 동 근처 벤치 (낮)

성준 두리번거리며 은홍을 찾는데  
성준 뒤에서 불쑥 나타나는 솜사탕  
돌아보면 하나는 이미 먹으면서 또 하나를 내밀고 있는 은홍

성준      말없이 가면 어떡해요? 걱정했잖아요.  
은홍      저도 뭔가 드리고 싶어서....  
성준      솜사탕? 이거 아주 오랜만인데요.  
은홍      제게 날개를 주셨으니까, 전 구름을 선물로 드리려구요.  
성준      (피식 웃으며) 여기 좀 앉죠.

성준, 솜사탕 받으며 벤치에 앉고. 은홍도 옆에 앉는다.  
머리를 날리는 시원한 바람...

성준      (손으로 솜사탕 뜯어먹으며) 난, 이거 남는 게 없어서 별로던데.  
은홍      저도 단 거 좋아하지 않아요.  
성준      그럼 돈 아깝게 뭐하러 샀어요?

은홍 (미소 짓다가) 이 솜사탕 만드는데 설탕이 얼마만큼 드는지 아세요?  
작은 차 스푼 하나가 채 안 들어요. 전에 호기심에 한 번, 먹지  
않고 뭉쳐본 적이 있는데 작은 알사탕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성준 .....

은홍 사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서.... 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꺾어보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니고, 어느새 녹아 사라지고 마는....  
(아무지게 웃으며) 저, 실연 했거든요.

하며 돌아보면, 성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다 먹은 솜사탕 막대기 빨며

성준 진짜 아무 것도 안 남네.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더 배고프네요.  
뭐 먹으러 갈래요?

#### 49. 회전 휘귀 집 (밤)

빙글빙글, 돌아가는 접시.  
여러 색의 접시에 각각 채소, 버섯, 해산물 등이 담겨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성준과 은홍.

성준 여기 오면 휘귀를 먹어줘야 하거든요.

은홍 휘귀요?

성준 한자로 화과, 중국식 샤브샤브인 셈인데 청도가 해변가라서  
싱싱한 해산물을 넣어 먹으면 그만이지요.

은홍 꼭 회전 초밥집 같아요.

성준 맞아요. 대게는 그냥 샤브샤브처럼 다 나오는데, 난 원하는 것만  
골라먹는 이 집이 좋더라고요.

성준, 별 고민 없이 앞에 있는 접시를 집는데 은홍은 뭘 집을까 고민하다 놓친다.  
보던 성준, 일어나서 은홍이 집으려던 걸 가져오고

은홍 (킁 웃으며) 도로 돌아올 텐데요.

성준 그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은홍 다시 오기만 한다면 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데...

성준 너무 늦게 온다면요....

은홍 그렇구나.....그건 오지 않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네요.

성준 맞아요.

은홍 (좀 쓸쓸하게).....그럼 봐야할 땐 어찌죠.

성준 잡을 때 망설이는 사람은 놓을 때도 망설이지 않을까요?

은홍 잘 잡고 잘 놓기라..... 저한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준 내 말 너무 깊게 생각하진 말아요. 나도 놓치고 나서 후회한 적도  
있으니까... (장난스럽게 돌변해서) 가리비 말고 새우 먹을 걸하고...

양볼 가득 조개를 넣고 웃는 성준.

그러다 벽에 인테리어 해 놓은 모형 비행기를 보고  
눈이 반짝반짝해지며

성준      앗! 저건 콩코드데. 콩코드 알아요?

은홍      아뇨.

성준      1969년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합작으로 개발한 여객기네요. 한동안  
대서양을 뒤통으며 다녔죠.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며) 이 늘씬한  
동체. 마치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 같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2003년  
에 은퇴를 했죠.

은홍      비행기를 아주 좋아하시나 봐요.

성준      (하하 웃으며) 새가 되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하니까 비행기로  
만족해야죠. 요즘 우리나라는 보잉747기종이 많은데....

은홍, 성준의 말을 흘려들으며 회전접시들을 다시 한 번 쳐다본다.  
그들 뒤로 창문 밖 가로등이 보이고

## 50. 동 앞 거리 (밤)

가로등에 비친 청도 거리.

연인들은 다정하게 걸어가고, 노천카페에선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커피 마시며 걷고 있는 성준과 은홍.

은홍, 가로등 앞에 가 서면 키다리 아저씨처럼 길게 늘어지는 그림자  
콩콩 거리며 자기를 밟으려 분주하고.  
보고 있던 성준, 은홍 모습이 우습다.

성준      원래 그렇게 혼자 잘 놀아요?

은홍      같이도 잘 놀아요. (하면서 성준의 그림자 밟는)

성준, 피하며 은홍의 그림자 밟고

서로 안 밟히고, 밟으려 투닥거리는 그들.

성준, 불리해지자 은홍의 옷을 잡고 놓지 않는데

자신의 손가락으로 성준의 그림자 머리 위에 빨을 만들어 보이는 은홍.

성준      뭐예요?

은홍      빨이요. ‘심술이’니까.

성준도 은홍의 그림자 엉덩이에 뭔가 만들고,  
짐짓 심술궂게 쳐다보면

은홍      (피식 웃는) 다 알아요. 꼬리 만들었죠? 구미호.

성준      (같이 웃으며) 귀신이 왜 그림자가 없는지 알아요?

은홍      ?

성준      무거워서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은홍 (어이없어 웃는)  
 성준 농담이고, 누구나 다 자기 그림자와 함께 살아요. 그림자가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죠. 뭔가 힘든 일이 있는 모양인데 다 지나가니까 편하게 생각해요. (시계 보는)  
 은홍 아.... 늦었죠?  
 성준 뭐, 좀 늦긴 했지만 지겹진 않았어요.  
 은홍 피곤하신데 하루 동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준 그래요. 내일은 또 어딜 가는지 모르겠지만 길 잃지 말고, 쓰러지지 말아요.  
 은홍 (깊게 인사하는) 고맙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자신이 생겼어요.

고개 드는 은홍을 바라보는 성준, 웬지 헤어지기 싫고...  
 바람에 은은히 날리는 은홍의 머리 결,  
 빛을 받아 살짝 도드라진 입술  
 성준, 은홍의 어깨에 손을 얹고... 서서히 다가가려는 찰나!  
 울리는 은홍의 휴대폰

은홍 (바라보면)  
 성준 (정신 든 듯 급히 떨어지며) 받아요, 그럼 자....무사비행!

은홍을 향해 손 흔들어주고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는 성준.  
 아쉬운 듯 바라보던 은홍, 전화 받고

은홍 아... 훈철씨! (활짝 웃는) 방금 헤어졌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철 (F) 약속 어겨서 빠지지 않았죠? 같이 봤으면 좋을 걸....  
 은홍 그러게요.

훈철의 전화 목소리와 함께 성준의 뒷모습 점점 사라지며  
 사람들을....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는 은홍

은홍 이제..... 돌아보지 말자. 다 지나가니까...

## 51. 상당산성 주차장 (오전)

차문 열고 나오는 성준  
 피식... 웃는다.

성준 지난 얘기가 아니었던 거네. (지나가는 아줌마에게) 여기 오면 청주시내가 다 보인단 데,  
 저 위까지 올라가야 합니까?  
 아줌마 그러지요.  
 성준 차...타고 갈 수는 없나보죠?

아줌마 차타고 땡기고 싶으면 시내 가서 한바퀴 도시요. 왜 여 와서  
그랄까.

별 이상한 사람이란 표정으로 지나가버리는 아줌마.  
성준, 잠시 생각하다가 양복 재킷을 벗어 차 안에 넣고, 분골함을 꺼낸다.  
아줌마를 따라 걷는 성준, 조금 걷자 갑자기 경사가 가팔라진다.  
후회스런 성준 돌아가려는데

아줌마 (떡 돌아보며) 총각이 몸이 선찮네.

쫓. 혀 한 번 차고 날아가는 아줌마.  
성준, 오기가 생긴다.

## 52. 동 산성 공남문 근처 (오전)

검은 구두에 얇게 얹은 먼지를 털어내며 서는 성준.  
건혀진 셔츠 소매 밑으로 팔뚝을 타고 땀이 흐른다.  
아줌마는 이미 점이 되어 저만치 앞서가 있고.  
땀이 흥건한 손으로 이마의 땀을 털어내는 성준.  
그 앞으로 보이는 청주시내 전경!  
저 멀리 미호천과 증평평야까지 느긋하게 펼쳐져있다.  
자기도 모르게 자연에 압도되어 큰 숨을 내쉬는 성준.  
그러다 정신 차리고 주머니에서 흰 장갑 꺼내며

성준 (은홍에게 말하듯) 자 여기 어때? 보고 싶다는 네 옛날 애인도  
보고.... 나하고 무슨 그리 큰 인연이라고 선산까지 따라가.  
넌 니 고향으로, 난 내 자리로 돌아가자.

성준, 분골함을 열려는데, 빨간 다이어리가 툭 떨어진다. 성준보고 보라는 듯  
바람이 불고.... 다이어리 속지가 휘리릭 넘어가고...

성준 뭐? 왜 또! (짜증내며 집어 들며 읽는) 언젠간 꼭 한 번 돌아가고 싶다.  
그저 좋기만 했던 열일곱으로... (고개 들고) 열일곱? 열일곱이면 고1 아냐!

성준, 잠시 생각해보다가 전화 버튼 누른다.

성준 어, 처제!

## 53. 은소의 방 (오전)

은소 왜요, 맘 바뀌셨어요?  
성준 (F)처젠 왜 언닐 데려가지 못해 안달이야.  
은소 이젠 언니가 있고 싶은 데로 보내주고 싶어서요.



성준 (F)잘 됐네. 언니가 가고 싶단 데로 갈테니 뭐 좀 물어보자.  
언니 어느 고등학교 나왔지?

전화 끊고 급하게 옷 입는 은소.  
방문 열고 나가려다 다시 돌아와 책상 서랍을 뒤진다.  
저 안쪽 끝에서 오래되어 낡은 열쇠고리와  
뭔가를 소중히 쥔 손수건을 꺼내는 은소. 가방 안에 넣고

#### 54. 동 현관 (오전)

신발 신는 은소.

은소 (은홍모에게) 엄마, 나 오늘 못 돌아올지도 몰라.  
은홍모 어디 가는데...  
은소 청주에  
은홍모 거긴 왜 가  
은소 언니 찾아올려구  
은홍모 김서방 지금 청주 가 있니?  
은소 (말 않는)  
은홍모 너, 형부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김서방 그 사람 언니한테  
잘못한 거 별로 없어.  
은소 왜 없어!! 결혼하고 나서 언니가 소리 내서 웃는 거 봤어?  
은홍모 (한숨 쉬며) 넌 아직 철없어서 모른다. 세상을 알게 되면 다 그러는  
거야. 돈벼락 맞지 않는 이상 웃을 일이 어딴어?  
은소 (또 그 소리다 싶은) 언닌 엄마처럼 돈독 오른 사람 아니거든.  
(문 열고 나가며) 언니 나온 학교, 산성상고에서 산성고로 바뀐 거 맞지?

#### 55. 성안길 (낮)

성준 (E) 여기, 산성고등학교가 어딴니까?

아기를 무등 태우고 가던 아빠, 돌아본다.  
차 안에서 창문 내리고 고개 빼 바라보는 성준.

성준 이 근처라던데....

그 손끝과 함께 움직였던 성준의 시선, 다시 아기와 아빠에게 돌아온다.

은홍 (Na) 나... 아이 못 낳아요. 나을 수 있어도 안 나왔겠지만.....  
나쁜 여자보단 모자란 여자가 낫죠?

아이와 아빠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성준의 부러운 눈빛  
멍하니 바라보다, 정신 차리고 차선 바꿔 들어가는.

## 56. 동 근처 다른 길 (오후)

완전히 꺼진 네비게이션, 툭툭 쳐도 반응 없고  
길을 잘못 들었는지 고개 빼고 이정표를 찾아보지만 낯선 거리만 보인다.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완전히 이상한 시골길  
1차선 도로가 꼬불꼬불 이어져 있고 이정표도 보이지 않는다.  
갓길에 차 세우는 성준,  
뒷목을 잡으며 콘솔박스 열어 피로회복제 마시는데  
갑동사니에 섞여있는 일회용 카메라.

## 57. 동 차 안 (회상, 오후)

운전하는 성준. 그 옆에 앉은 은홍,  
고개 돌리고 성준 향해 낮게 뭐라고 말한다.  
들리지 않아 기분 나쁜 성준

성준 (신경질적으로) 너 내가 웅얼거리지 말랬지. (하며 고개 돌리면)  
은홍 (mp3에 녹음하다가) 별말 아닌데.... 연습한 거예요.  
성준 (다시 앞을 보며) 그래도 하지 마. 운전하는데 정신 사나워.  
은홍 알았어요.  
성준 대체 그런 건 왜 하는 거야? 뭐하나 되는 것도 없으면서 배우는 건  
뭐가 그리 많고...  
은홍 꼭 이뤄야만 꿈이에요?

성준, 말문 막히는데, 이때 옆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  
끼익! 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성준  
그 바람에 은홍의 치마에 가려있던 일회용 카메라가 바닥으로 툭 떨어진다.

성준 (바라보다 어이없다) 너 또 카메라 만졌니?  
그거, 사고 나면 혹시 모르니까 넣어두는 거랬지.  
은홍 (어색하게 웃는)  
성준 찍고 싶음 니 핸드폰으로 찍으라니까  
은홍 (일회용 카메라 만지작거리며) 옛날느낌 나는 게 좋아서....

## 58. 고향 사진관 앞 (현재, 낮)

창밖으로 고개 둘러보면 정말 옛날 느낌 나는 사진관이 보이고.  
손을 흔들어도 멍하니 반응 없는 아저씨. 사진관 앞에 의자 놓고 앉아있다.  
파리가 날려들자 파리채로 정확하게 찍 누르며 멀뚱하게 성준을 쳐다본다.

성준 (다시 설명하는) 제 네비가 고장 나서요... 산성고등학교가 이 근처  
같긴 한데

아저씨 (모기 물린 목이나 긁고)

아저씨의 표정에 별 소득 없겠다 싶은 성준,  
그냥 갈까 하며 브레이크 풀다가 눈이 문득 일회용 카메라에 멈추고

성준 ....이거 현상.....해 주실래요?

아저씨 (얼굴 싹 달라지며) 그래, 몇 장이나 뽑을라나?

성준 찍힌 건 다 한 장씩 뽑아주시구요...산성고는

아저씨 (호들갑) 아이구, 산성고는 여기 아냐. (신나게) 이쪽으로 돌아가서  
쭈욱 올라가다가 저쪽 길에서 졸루 가서 한마장 쭈

성준 (답답) 네?

아저씨, 자기도 답답한지 종이 가지고 나와 약도 그려가며 열심히 설명한다.

## 59. 산성고 교정 (오후)

약도 들고 차에서 내리는 성준

붉은 벽돌 건물이 세월을 간직한 채 서있다.

성준, 주위를 둘러보며 별 느낌 없는 눈빛..... 여기 왜 왔나 싶은....

학교는 조용하고, 차 안에 앉아있는 은홍의 영정사진은 그저 차분하다.

담배 한 대 피는 성준.

연기가 소리 없이 스러져가는 모습을 공허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성준 (허공을 향해, 은홍에게 내뱉듯) 됐냐?

성준, 차문 다시 열고 타려는데 어디서 비명소리 같은 게 바람결에 들린다.

## 60. 동, 선수체력훈련장 (오후)

“으아! 으아!” 비명 섞인 기합소리!

훈련받고 있는 선수들. 2인 1조가 되어 스트레칭 중이다.

터져 나오는 신음을 참아내며 이를 악물고 마무리 연습 중인 학생들.

벽엔 조정대회 참가 사진, 우승기, 스냅사진들....

코치 같아 보이는 여자가 성준을 본다.

여자 (다가오며) 무슨 일이지요?

성준 아닙니다. 지나가다 소리가 들려서...

여자 누구 찾아오신 거면, 본관은 저쪽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성준 찾아왔다기 보단 아는 사람이 여길 나와서요.

여자 이름이?

성준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여자 저도 여기 졸업생이에요.

성준 .....이 은홍이라구...

여자 (놀라고 반갑고) 은홍이요? 29회 은홍이?

## 61. 근처 등나무 밑 (오후)

여자 개도 조정부였어요. 갑자기 청주 뜨기 전까진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성준 (그저 어색한)  
여자 그담은 저도 몰라요. 단짝 수경이한테까지 암말 없이 사라졌다고  
말들이 많았어요.  
성준 네에...  
여자 소문만 들었는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했다고도  
하고... 아직 혼자라고도 하고...  
성준 (안색 바뀌는)  
여자 근데 참, 은홍이완 어떻게 되세요?  
성준 (당황) 치....친척...  
여자 혹시, 사촌 오빠? 은홍이가 얘기한 적 있는데  
성준 (더듬더듬) 아...예.. 뭐...  
여자 그러시구나. 은홍이 결혼했어요?  
성준 (착잡해지는).....네.  
여자 (սսս) 그렇구나, 재형인 그 소문 믿지 않는 눈치던데.  
성준 재형이요?  
여자 모르세요? 재형이랑 은홍이 유명했는데. 하긴 은홍이 개가 자기  
얘기 잘 안하는 애라....  
성준 (동요되는 감정 숨기며) 지난 일인데 뭐하러 말하겠어요.  
여자 (생각난 듯) 잠깐만요. (휴대폰 꺼내 어딘가로 전화하며) 재형아! 너  
은홍이 소식 궁금하다 그랬지.

당황스런 성준, 미간에 주름이 잡히며 손을 내젓는데

## 62. 충주 가는 도로 (오후)

여자 (E) 한 번 만나보세요. 재형이가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진 거리를 달리는 성준의 차  
하지만 성준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핸들위에 놓인 손가락이 핸들을 계속 신경질적으로 톡톡톡 건드리다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며

성준 (은홍을 노려보는) 그 남자 아직도 못 잊은 거야? 그래서 날 여기  
까지 끌고 온 거니?

끼이익익, 급하게 출발해 유턴하는 성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다 다시 우뚝 서고, 그 위로

여자 (E) 은홍이 증발하고 재형이도 많이 변했어요. 애가 갑자기 늙더라구.

‘늙더라구...’ 하는 부분에서 잔인한 미소가 떠오르는 성준.  
은홍을 흘깃 보더니 다시 유턴한다.

### 63. 탄금호 조정경기장 / 차안 (해질녘)

차창 안으로 노을이 들어온다.  
멀리 보이는 탄금호를 가르는 로잉 보트에도 석양은 물들고  
앉아있는 성준, 선뜻 내키지 않는 얼굴  
선수들이 연습을 마치고 배에서 내린다.  
멀리 보이는 얼굴들은 누가 누군지 구분이 어렵고...  
쨍그리며 구별해보려고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다.  
차 문을 여는 성준의 손.

### 64. 동 경기장 내 (해질녘)

땀 뒹으며 걸어오는 선수들. 둔덕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는 성준.  
모두 평범한 얼굴이다. 그 중 한 선수, 성준을 보더니

선수1 김성준씨?

바라보는 성준, 나이 들어 보이는 선수1의 모습에  
왠지 안심의 미소가 흐르는데

선수1 (뒤돌아) 재형아! 왔어.

뒤쪽에서 보트 정리하고 있다가 고개 드는 남자, 재형  
건강한 체격에 단단한 어깨....  
검게 그을린 당당한 표정 사이로, 깊은 눈이 성준을 바라본다.  
당황스런 성준, 급히 시선을 피한다.  
자신의 굵은 어깨와 대조되는 재형의 모습에 위축되는 성준.

재형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서. 같이 하는 운동이라 저만  
빠지기 미안해서요. 은홍이 사촌오빠시라고요. (손 내미는)

성준 (피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이 악수하는)

### 65. 동 호수 옆 잔디밭 (이른 저녁-저녁)

하나 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한다.  
성준 옆에 앉는 성준

재형      청주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성준      뭐... 일이 있어 지나는 길에...  
재형      은홍이도 같이 왔음 좋을텐데.  
성준      (귀에 거슬리는) 은.홍.이...?  
재형      (성준의 기분 못 느끼고) 왜 한 번도 안 오나, 고향도 잊어버렸나  
            싶었습니다.

F.B.>    42신 은홍의 휴대폰에 온 문자 위로 재형의 목소리로

(Na)살아있니? 고향도 잊어버릴 만큼 행복해? 한 번 보고 싶다.

재형을 다시 보는 성준.

성준      지금도 혹시...연락하나? 은홍이하고?  
재형      예? 그러면 좋겠지만....(얼버무리는)  
성준      (의심스런) 왜? 아냐?  
재형      은홍인 잘 있나요? 결혼.....언제 했어요? 은홍이가(하는데)  
성준      (말 끊고 발끈해) 결혼한 여자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불러도 되나?  
재형      형님도 은홍이라고 하셨는데....  
성준      나하고 같아?  
재형      (표정보고) 아, 실수했네요, 형님. 제가 습관이 돼서..  
성준      (목소리 높였지만 자신은 더 없어진)  
재형      은홍씨 잘 지내죠?  
성준      (서글퍼지는) 잘 지내겠지...  
재형      본 지 오래되셨어요?  
성준      아니.. 그건 아닌데 애길 잘 안 해봐서.. (자신한테 말하듯) 그러구  
            보니 얘기해 본 적이 없네. 별로 할 얘기도 없었구.  
재형      (좀 이상하다 싶어보는)  
성준      (재형 의식하고 정신 차리며) 은홍이가 워낙 엉뚱하고 말이  
            없으니까  
재형      네? 은홍이가요?

의아한 표정으로 성준을 바라보던 재형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성준 앞에 내민다.  
재형과 은홍이 어깨동무하고 가운데서 찍은 사진,  
그 옆으로 같이 엉켜있는 다른 친구들도 여럿 보이고....  
10신, 청도에서 은홍이 창가에 두고 떠났던 그 사진이다.  
은홍의 활짝 웃는 얼굴. 성준이 처음 보는 은홍의 밝은 모습이다.  
성준, 충격인 듯 한동안 바라만 보다가

성준      이렇게 웃..었.나?  
재형      그럼요, 웃고 재잘거리고. 말하는 입모양이 꼭 참새 같아서 제가  
            참새구이라고 놀렸었는데!

울컥하는 성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지지만 참는다.  
억울하게도 사진 속의 소년소녀는 너무 해맑게 잘 어울리고.

재형 (추억에 잠기며) 둘이 가던 보육원이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섞여서  
웃고 노는데 누가 애고 누가 어른인지.... 전 사실 애들 별로라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은홍이한테 끌려가곤 했습니다.

성준 (혼잣말) 아이...라구....?

재형 아! 그 사진도 어디 있을 거예요.

## 66. 동 숙소. (저녁)

아이들을 안고 업고...

개구쟁이들에 둘러싸여 브이자 그리며 찍은 은홍의 사진

재형, 빛바랜 사진첩을 넘기며 설명하고,

재형과 찍은 은홍의 사진들 고스란히 남아있다.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가는 성준.

재형, 생각난 듯 일어나 커피포트 앞으로 가며

재형 차 드시죠? 준비할 동안 사진보고 계세요.

재형이 멀어지면 사진첩을 다시 뒤로 돌려

아기들과 찍은 사진을 바라보는 성준

성준 (혼잣말) 아인... 분명히 싫었는데....

혼란스러운 성준, 얼빠진 얼굴로 바라보다

재형의 책상 벽에 붙여놓은 사진에 눈이 간다. 여기도 은홍과 찍은 사진이 있고.

여기저기 은홍의 사진으로 도배를 해놨다 싶어 기분 나빠진 성준

재형이 등 돌린 사이 벽에 붙은 사진을 톡 뜯어 버린다.

벽과 책상 사이로 툭 떨어져 사라지는 사진

성준에게 들고 오는 커피 잔이 소주잔으로 바뀌며

## 67. 어느 선물집 (밤)

찰랑이는 소주잔을 타고 넘친 소주가 성준의 와이셔츠를 적신다.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툭 털어내며 원샷하는 성준. 빈 소주병 두세 개.

성준, 흐느적거린다. 술이 센 재형도 제법 취기가 올라있다.

어느 새 말투도 가볍게 바뀐 두 사람, 경계심과 친근감이 묘하게 섞인 분위기

성준 언제 만난거야

재형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사귀기 시작한 건 중3때부터고.

성준 (비웃는) 어린 것들이...  
 재형 어리지 않았어요. 충분히 사랑할 나이죠.  
 성준 충분히 사랑할 나이? 그게 뭔데?  
 재형 상대를 자신보다 아낄 수 있는 나이죠.  
 성준 웃기지마. 사랑할 나이는 책임질 수 있는 나이야. 어려서 불장난이 아니라고.  
 재형 어리면 책임질 수 없나요?

두 사람의 눈빛 팽팽하게 맞서고  
 성준, 너무 흥분했다 싶어 감정을 삭이며

성준 같이 찍은 사진은 없애라. 은홍이 남편이 보면 어찌려고.  
 재형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막 대하는 여자가 얼마나 괜찮은 여잔지...  
 성준 (버럭) 막대하긴 뭘 막 대해?  
 재형 나도 소문 들었어요. 행복하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숨어있진 않을 겁니다. 조정을 못하게 돼서? 집이 망해서? 겨우 그런 일로 자신을 가둘 애 아니에요, 은홍인....  
 성준 은홍이라고 부르지 말랬지, 자식아! (스텐 쟁반으로 재형머리 때리는)  
 재형 그 남자 앞에서만 안 부르면 되잖아요!  
 성준 그 남자? 그래, 그 남자가 은홍이 남자야.  
 재형 (단호한) 아뇨! 은홍인 돌아올 거예요.  
 성준 (기가 막히는) 뭐?  
 재형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적 없어요. 그만 만나자고 한 적도 없구요!!  
 성준 (일어나며) 너! 나와 봐  
 재형 (어리둥절) 왜 그래요, 형!

재형이,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바라보자  
 다시 돌아와 재형을 끌고 나가는 성준

## 68. 동 밖 (밤)

성준 너 같은 놈한테 은홍이가 갈 거 같아?  
 재형 (크크 웃는) 형이 어떻게 알아요! 중요한 건 형이 아니라 은홍이에요. 은홍이 맘.  
 성준 (감정 격해진) 은홍이라고 하지 말랬지. (한 대 치고) 하지 말랬잖아.  
 (절규하듯) 하지 말라니까, 말을 안 들어 새끼가.

점점 감정이 실리는 성준의 주먹.  
 재형, 몇 대 맞아주다가 성준의 손목을 붙잡는다.

성준 뭐야? 피해?

열 받은 성준 더 달려들면,



재형 요령껏 피하면서 상대해주다 정통으로 한 방 맞는다.  
참고만 있던 재형도 감정이 격해지는데

성준     너 솔직히 말해. 스토키지.  
재형     (어이없는) 네에?  
성준     발신자 제한해놓고 은홍이한테 전화하고 문자치고.... 오늘도 너지?  
재형     (그 소리에 낮이 나간 듯, 막고 있던 손을 스프르 놓는)  
성준     (맞지? 하며 쳐다보는데)  
재형     (걱정 가득한 눈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은홍이? (성준을 흔들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성준     (먹살을 잡는) 야 임마! 네가 왜 은홍이 걱정을 해. 왜!  
재형     (잡힌 먹살을 뿌리치며)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못하니까!

성준, 머리로 재형을 들이받으면 우웁! 가슴을 잡는 재형  
재형의 팔뚝에 힘줄이 돋으며 성준에게 제대로 주먹을 날리면  
고개가 돌아가며 꺾하고 입술이 터지는 성준  
성준, 무섭게 달려들다 그대로 함께 나동그라지고  
희미한 가로등 아래 두 사람 뒤엉켜 뒹구는데  
가로등 저편에서 두 사람을 보고 있는 그림자, 은소다.  
한심하단 표정으로 꿈쩍 않고 서 있는 은소.

(시간경과)

바닥에 널브러진 두 사람.

성준     (힘들어 씹씹거리며) 나쁜 놈의 새끼. 남의 여잘 넘봐.  
재형     내가 먼저 만났어요. 헤어진 적도 없구요.  
성준     (또 욕하지만 이제 힘이 없다)

성준, 찢어진 입에서 흐르는 피를 닦는다. 웬지 후련하다.  
보고 있던 재형, 그대로 눈을 감고.  
떨어진 재형의 지갑에 눈이 가는 성준, 지갑을 연다.  
그 속에서 재형과 은홍의 사진을 꺼내는 성준  
그대로 품속에 넣고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어간다.

재형     (눈 뜨고) 은홍아..... (성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네.  
          안심해도 되겠다. (다시 눈 감는데)  
은소     (옆에 와 앉으며) 아니, 오빠도 형부도 형편없는 사람이야.  
재형     (놀라서 눈뜨고) 은소? 너 은소지.  
은소     오랜만이야.  
재형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컸어?  
은소     시간이 흘렀으니까....

재형, 일어나 앉으면 은소, 재형 손에 묻은 피 보고 휴지 내밀며

은소 그 꼬맹이가 오빠 좋아했던 거 알지? 왜 포기했는지도 알고.

재형 .....

은소 나 오빠 좋아하지만 우리 언닐 더 좋아해. 그래서 언니하고 잘됐음  
하고 바랬어.

재형 날 떠난 사람은 은홍이야.

은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언니가 떠나고 싶어서 떠났다구....?

재형 무슨 소리야

## 69. 산성고 선수체력훈련장 (회상, 해질 무렵)

“소리 질러” 하는 코치의 구령에 따라

“와아아” 악을 써대는 산성상고 남녀 조정부 학생들

그 안에 재형과 은홍도 보이고

에르고메다 훈련으로 지친 학생들, 거의 악으로 버티고 있는데

코치가 “자, 해산~!”이라고 하자마자 락커룸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

은홍 슬슬 걸어가면 재형 다가와

재형 빨리 안가? 샤워실 붐빌 텐데

은홍 기다렸다 하지 뭐. 집에 가서 하든가. 어차피 땀에 찼어  
사는 인생. (하하하 크게 웃는)

재형 그럼 나도 그냥 갈까? 우리 둘이 걸어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꺼야...

은홍 냄새나서.

크크크 둘이 웃는데 뒤에 와서 재형의 어깨에 손 얹는 코치

코치 재형아, 나 좀 보자.

은홍 (밝게) 무슨 일인데요?

코치 은홍인 샤워하러 가

재형 (은홍에게) 그래, 기다리고 있을 게.

은홍 네.

하고 가지만 심상치 않은 코치 표정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은홍  
샤워실로 가려다 다시 돌아서고

## 70. 동 등나무 근처 (이른 저녁)

모퉁이 너머로 보이는 등나무 밑에서

심각한 표정의 코치와 재형이 얘기 중이다.

코치 왜 안 나가겠다는 거야?

재형 아직 실력이 안됩니다.

코치 (버럭) 그건 니가 아니라 내가 판단해.  
재형 .....  
코치 국가 대표가 될 지도 모르는데 왜? 남들은 못나가서 안달인데  
기획 쥐도 싫은 이유가 뭐야.  
재형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코치 은홍이 때문이지?  
재형 아니에요.  
코치 처음에 조정한다고 왔을 때부터 은홍인 안된다고 내가 말했었지?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냥 붙여준 건데 여자 때문에 꿈을 포기해?

듣고 있던 은홍, 충격으로 입술을 깨물고

재형 포기한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는 지금이 아니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치 (기가 막히는)니가 얼마나 대단해서 너 하고 싶을 때 맘대로 대표 시켜준데!!!  
너 이판 식으로 나오면 이은홍도 너도 퇴출이야.  
운동은 안하고 연애질이나 하고, 잘 한다.  
재형 졸업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까지만 같이 있게 해주세요.  
코치 니가 감독하고, 니가 코치해라, 인마. 넌 아웃이야.

화난 코치, 일어나 은홍 쪽으로 걸어오면  
얼른 나무 뒤로 가 숨는 은홍  
코치가 지나가면 생각에 잠기는데  
휴대폰 진동음이 울리면 열어보는 은홍

## 71. 패스트푸드 점 (오후)

재형이라고 액정에 뜨면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닫는다.  
그 앞 의자에 와서 앉는 코치, 표정 별로 좋지 않다.

코치 밖에서 날 보자고 하고, 무슨 일이야.  
은홍 저.... 조정 그만두려구요.  
코치 (놀라지도 않는) 그런 애길 왜 따로 말해. 부실에서 하면 되지.  
은홍 그게.... 재형이한테 말씀 안하셨으면 해서요.  
코치 (보다가 외면하며) 솔직히 너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그 놈  
조정에만 매달렸으면 벌써 국대 달고도 남았다.  
은홍 압니다. 제가 좀 더 일찍 그만 댔어야 했는데... 재형이 잘 부탁드립니다.  
코치 네가 그만 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지도 따라서 그만 둔다고  
하면 내가 잡아야 무슨 소용 있나, 말 들을 놈도 아니고.  
은홍 저 다음 주 토요일에 이사 가요. 재형인 몰라요.  
코치 (안심한 듯) 알았다.  
은홍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는)  
코치 (따라 일어나 등 두드리주며) 니들 땀 사랑이 전분 거 같지만

지나고 보면 잠깐 불장난이야.

## 72. 선술집 앞 (현재, 밤)

은소      난 또, 오빠가 국가대표 돼서 신문에 나고 유명해져 있을 줄 알았지.  
재형      (얼빠진) 몰랐다.... 정말...!  
은소      언니 사라지고 나서 엉망이었다며. 바보! 잘 돼서 찾아오지 그랬어.  
재형      은홍이 지금 어딴니? 만나야겠다.  
은소      (표정 서글퍼지며 재형을 보는)  
재형      왜?  
은소      (시선 내리며) 형부가 아무 얘기 안 해?  
재형      은홍이란 말도 못 꺼내게 하던데...  
은소      언닌..... (말하려다 마는) 오빠한테 돌아올 수 없어..... 언니가  
            최근까지 좋아한 사람은 오빠도 형부도 아니야.  
재형      딴 사람 있니?  
은소      (끄덕끄덕) 나도 본적은 없어. 누군지 알면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하늘을 올려다보는 은소  
서울에선 보지 못하던 수많은 별들이 가로등 사이로 보인다.

## 73. 고향 사진관 앞 (밤)

가로등이 깨져 킁킁한 사위. 58신과 동일 장소  
이미 불 꺼진 사진관을 마구 두드리는 성준.  
미닫이문에 달린 유리창이 덜덜덜 흔들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성준      (계속해서 두드리며) 아저씨! 아저씨!

마지못한 듯, 알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고쟁이 바람으로 자물쇠 여는 아저씨

성준      아까 맡긴 사진, 나왔죠? 주세요. 뭘 찍었는지 봐야겠어요.

받자마자 급하게 봉투 열어보는 성준,  
하지만 흔들린 사진 몇 장... 그리고 별 의미 없는 사진들. 허탈하다.  
전화오고

은소      (F) 형부, 거기 어디예요?

## 74. 청주 무심천 가 (밤)

자갈밭 위에 모닥불 피우는 성준  
뒤편 갈대밭 사이에 세워진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갈대너머 고즈넉한 강가를 비춘다.  
모닥불에 비치는 은홍의 유품들. 은홍의 연보라 스카프가 바람에 하늘거린다.  
마음을 정리하듯 유품들을 하나하나 모닥불에 넣는데  
그 사이에서 뭔가 오그라드는 종이. 느낌이 이상하다.  
후다닥 불 사이에 손을 넣어 꺼내는 성준.  
손이 아픈 것도 잊고, 귀통이에 붙은 불을 발로 비벼 끈다.  
타들어간 검은 윤곽선 옆으로 남은 종이는  
이미 조각조각 찢어진 종이조각 중 하나.  
다이어리와 같은 종이에 뭔가 지워진 선들.  
다이어리의 찢어진 부분을 펼쳐 <보고 시.....표> 옆에 맞추면  
<보고 싶다. 나를 보는...>까지 연결되는데....  
주먹을 쥐며 유품상자를 미친 듯이 뒤지는 성준

성준      누구야! 내가 보고 싶은 놈이? 한 재형 그놈인가...  
            아님 또 판 놈이야?

찢어진 조각들을 모으는 성준. 테이프로 열기설기 붙이면  
누군가의 옆모습을 여러 번 덧그리고 지우다 실패한 듯,  
겹친 여러 선들이 그려지다 말았다.  
웬만한 조각은 다 모인 종이.  
하지만 <나를 보는>의 옆에 맞는 조각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부르르 떨리는 성준의 손.  
그러다 이상한 메모를 하나 발견한다.  
젖은 걸 말린 듯 꾸덕꾸덕한 메모

### F.B.1. 은홍의 집 베란다>

훈철      (Na)오페라 초대권이 생겨서 마누라와 갈까 하는데 너도 생각 있음  
            은홍씨와 같이 가자. 13일이야.

담배 피우러 나왔던 성준, 빨래 줄에 널린 메모를 보고

성준      이런 걸 왜 말리지. (하는데)  
은홍      (얼른 나와 뒤로 감추는)  
성준      내가 보면 안 되는 건가 왜 감춰?

### F.B.2. 차안>

훈철      (운전하며) 은홍씨 동생, 은홍씨 많이 닮았네. 그 때 은홍씨 참  
            예뻐했는데...  
성준      (의아) 그 때?  
훈철      너 그때부터 은홍씨 알던 거 아니었어? 회사에도 찾아온 적 있잖아

### F.B.3. 중국 성준의 호텔>

성준, 침대에 누워, 눈도 못 뜨고 전화 받고 있는

성준 그 여자가 또 만나 재?

훈철 (F) 내가 보자 그랬어. 혼자 놔두기도 불안하고, 나도 시간 여유 있는 줄 알고.

성준 (메모지를 구기며) 훈철이... 이 새끼! 마누라도 있는 새끼가. 옆에서... 바로 내 옆에서...

급하게 휴대폰 꺼내 버튼 누르는 성준

### 75. 훈철의 집 (밤)

침대 옆에서 울리는 훈철의 휴대폰

한참 잠에 취한 훈철, 그 옆엔 훈철의 아내가 자고 있고

받기 싫어 뒤척거리는 훈철의 휴대폰을 더듬거리려 잡아 건네는 아내.

훈철 한숨 쉬며 겨우 받는다.

성준 (F, 받자마자) 내 전화 일부러 안 받냐?

훈철 (발음도 꼬이는) 무슨 소리야. 오밤중에.

성준 (F) 아무 때나 전화하라며

훈철 그야....참, 너 어디야. 은홍씨 잘 보내줬냐?

성준 (F) 은홍이가 궁금하긴 한가부다. 유부남이...

훈철 뭐 잘 못 먹었어? 왜 그래?

성준 (F) 너야말로 나한테 뭐 찢리는 거 없냐? 유부남이...

훈철 같이 가준다고 할 땐 싫다더니 뭐 문제 있어? 지금 같까?

성준 (F) 아니,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은홍이가 회사에 너 찾아온 적있다 그랬지. 그게 언제야.

훈철 언제지?..... (기억을 떠 올리며) 너 결혼하기 한두 달 전인가...

### 76. 00항공사 엘리베이터 앞 (회상, 오후)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 문이 열린다.

내리던 훈철, 타려고 서 있던 은홍을 발견하고

훈철 저기, 청도에서 본 적 있죠.

은홍 (놀라고, 한편으로 반가워) 저 기억하세요?

훈철 당연하죠. 잘 지냈어요?

은홍 네... 찾아가던 중이었는데 만났네요.

훈철 여긴 웬일이예요.

은홍 배낭 정리하다보니 나오더라구요. 돌려드려야 될 거 같아서...

## 77. 동 2층 자판기 옆 난간 (오후)

훈철 (커피 잔 뽑아 은홍에게 내밀며) 내 꺼 아닌데요. 성준이한테 물어보세요.

은홍 그 분은 어디계세요?

훈철 (1층 로비 커피숍을 가리키며) 저기 있네요.

은홍 보면, 잔뜩 찌푸린 채 다리 꼬고 앉아 냉수 들이켜고 있는 성준

## 78. 동 로비 커피숍 입구 (오후)

들어갈까 말까 서성이는 은홍.

심호흡하고 들어가려는데

어떤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 열 받은 얼굴로 통화중이다.

여자 내 타입 아냐. (사이) 조종사도 미끄러졌다며, 한 쪽 귀 먹었던 애길 왜 지금 해?  
나보고 병신이랑 살란 말야. 미쳤어? (사이)

그 남자 맞다니까 (성준을 돌아보며) 검색 양복 입고 빨테 끼고,  
이름표에 써있네. 김성준이라구.

은홍 (놀라서 돌아보고)

여자 엄마가 그랬어 분명히! 보고 맘에 안 들면 그냥 와도 된다구.  
나, 간다.

여자, 전화 탁 끊고 밖으로 나간다.

당황스런 은홍, 여자와 성준을 번갈아 보다가 주춤거리며 들어선다.

성준과 눈이 마주치고

성준 나 찾아왔어요?

은홍, 다가가는데 벌떡 일어나는 성준, 은홍의 손목을 낚아채 나가며

성준 (낮게 협박하듯) 아무 말 말고 나가서 얘기하죠. 사람들 눈이 있으니...

얼결에 따라 나가는 은홍.

손에 들고 있던 하얀 것을 가방에 도로 넣는다.

## 79. 무심천 (밤)

훈철 (F) 그때 가져온 게 뭐였더라. 하얀 손수건에 싸서 왔던데.  
기억이 안 나네. 너한테 안 보여줬어?

성준 돌려주려고 온 게 아니었나부지, 누구 얼굴만 봤음 되는 거  
아니겠어.

훈철 (F) 너 대체 왜 그래? 무슨 애긴지 말을 해. 말을  
성준 (가시 돈친) 올라가서 얘기하자. 알았으니 끊어.

탁 전화 끊는 성준.

찢어진 다이어리 조각들도 외면하고 모닥불만 바라본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모닥불에 비친 성준의 얼굴, 배신감으로 얼룩지는데  
차 한 대가 와서 선다.

내리는 은소

은소, 성준의 표정을 보곤 말없이 은홍의 유품을 뒤적거린다.

성준 (한참 후에) 엇그제까진 언닐 다 안다고.... 신비로울 것도, 알고  
싶은 것도 없어서 너무 심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내가 알던 사람이 은홍이였는지 잘 모르겠어.

은소 (가만있는)

성준 처제 알고 있었어? 언니가 좋아했던 사람.

은소 .....정말 알고 싶으세요?

성준 언니가 있고 싶다는 데..... 그 사람 옆일 거 아냐. 처제 말대로  
보내주는 게 나을 거 같네.

은소 저도 확실히는 모르는데, 중국에 갔을 때 만난 사람 같아요.

성준 중국? (역시나 싶은)

은소 형부와 결혼하기 전에 고민하더라구요. 그 사람이 자길 안 좋아 한다고.

성준 안 좋아 한다가보다 좋아할 수 없었을 거야. 이미 여자가 있었으니까....

은소 (눈 커지며) 형부도 알아요?

성준 (고통스러운) 언니가 왜 나와 결혼했는지 알 것 같아. (허탈한 웃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계속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은소 그럼, 그 분 만날 수 있어요? (주머니에서 열쇠고리와 손수건을 꺼내며)  
이거 그 분 거라는데...

이때, 모닥불에서 날라 온 불똥이 은소에게로 튀면 손으로 툭 쳐내는 성준.

그 바람에 은소 얘기 못 듣고, 은홍의 휴대폰은 자갈 위로 팽개쳐지고...

성준 처제 괜찮아? (하는데)

어디서 들리는 가느다란 음악소리

떨어지며 저절로 눌러진 휴대폰에서 동영상 재생되고 있다.

동영상 속 거실 화면이 점점 확대되며

## 80. 성준의 집 거실 (낮 / 휴대폰 동영상)

소파에 앉은 사람 시점으로 보이는 거실

음악은 흐르고 있는데 아무도 없다.

은소 (E) 뭐해 언니! 노래 다 끝나겠어.



거실 옆 작은 방에서 어뒀하던 그림자가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연다.  
섹시한 재즈 댄스복을 입은 은홍, 파인 가슴이 어색한지 한 손으로 올라가며  
쭈뼛쭈뼛 나타나고

은소 (E) (박수소리)...와!  
은홍 나 이거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이상할 텐데...  
은소 뭘 빼고 그래... 나 밖에 없는데!

어색하게 춤추기 시작하는 은홍.  
하지만, 음악 속으로 빨려들듯 몰입해가는 은홍의 볼이 점점 흥조를 띄어가고  
내리칸 속눈썹... 부드러운 손끝... 아름다운 모습...!

## 81. 무심천 (밤)

은홍이 춤추는 휴대폰을 보고 있는 성준  
성준의 눈동자에 은홍의 춤추는 모습이 새겨지며  
성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은소 (E) 혼자 보기 아깝다. 이거, 짹 어뒀어? 홈페이지에 올려줄게.

은소가 움직이는지 휴대폰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서랍 뒤지는 소리.

은홍 (E) 찍었어? (당황하는) 하지만, 형부 안 좋아해.  
은소 (E) 모르는 소리. 형분 언닐 너무 몰라. 알면 달라질 켔.  
은홍 (E) 잔말 말고 예약문자 어떻게 보내는 지나 갈쳐 쥘  
은소 (E) 누구한테?  
은홍 (E) 넌 몰라도 돼.  
은소 (E) 혹시 언니 좋아하던 그 사람... 그 사람한테?  
은홍 (E) .....  
은소 (E) 잘 생각했어. 언니가 자길 좋아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  
은홍 (E) 예약 문자 갈쳐 달라니까...마음 바뀌기 전에 미리 보내버리게.  
은소 (E) 예약시간 설정만 하면 돼, 쉬워 (하다가) 이게 뭐야?

휴대폰 화면에 병원 진단서가 쓱 지나가고

은소 (E) 형부 무정자증이야? 애 못 가져?  
은홍 (E, 버럭) 야! 뭘 뒤져!

마구 흔들리는 화면, 그리고 푹 끊기는 동영상.  
성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진다.

떨어지자 리셋 되 듯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동영상  
까만 강가, 자갈 사이에서 은홍의 매혹적인 춤은 계속되고  
투둑.. 하고 꺾이는 성준의 무릎. 덜덜 떨리는 손!  
은소, 고개 숙이고 외면한다.

넋이 나간 채 그대로 돌처럼 굳어있던 성준  
은소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고  
시선 내려 보다가 은소의 손에 들린 열쇠고리가 보인다.  
성준 잡아채려고 하면

은소 (뒤로 숨기며) 형부, 못 본 걸로 해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형부한테 너무 잔인한 거 같아서....

이때, 성준의 휴대폰이 울린다.

훈철 (F) 생각났어. 은홍씨가 가져 온 거. 니 열쇠고리더라. 나침반 달린거,  
중국 갔다가 잃어버렸었잖아. 돌려주려고 왔으면서 너한테 왜  
아무 말도 안했을까. 야... 듣고 있냐...

성준의 휴대폰 든 손이 힘없이 툭 떨어진다.

#### F.B. 29신> 은홍 방

은소, 은홍의 책상에서 열쇠고리와 손수건에 곱게 쓴 단추 두개를 발견하고

은소 (들어보며) 이거 누구 꺼야?  
은홍 돌려주고 싶었는데.... 돌려주기 싫어진 사람  
은소 뭐야 그게  
은홍 나를 기억 못해. 혼자 간직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은소 좋아하는 구나! (은홍을 뺨히 보며) 그 남자랑 결혼해!  
은홍 .....날 안 좋아하는데두?

성준, 텅 빈 눈으로 밑을 바라보다가  
무릎 아래 자갈 사이에 낀 종이조각을 발견한다.  
찢어진 다이어리 조각들의 빈자리에 맞추면 비로소 완성되는 글씨

은홍 (V.O.) 보고 싶다. 나를 보는 성준씨를... 그는 항상 나 아닌 곳을 본다.

미안함, 안타까움, 후회 등이 뒤섞인 서글픈 성준.  
오늘 인화한 봉투 속 사진들을 다시 꺼내본다.  
한 장 한 장 다시 자세히 보면 사진 속 어딘 가엔 성준이 언제나 찍혀있고.  
차안에서 자는 모습... 다른 운전자와 닮은 모습... 휴게소에서 커피 마시는 모습..  
그 중에 한 사진, 은홍이 그렸다 지웠다는 반복한 옆모습과 닮아있다.

이때, 바람결에 휩 날아가는 은홍의 스카프, 강물 위로 떨어진다.  
비틀비틀 강가로 걸어가는 성준

성준 (강을 향해) 은.홍.아!!!

강물로 저벅저벅 들어가는 성준.  
달빛 받은 강물 위에 누운 스카프가 서서히 젖어 가면  
닿지 않는 스카프를 향해 손을 뻗는 성준의 애타는 목소리

성준 너니?..... 은홍아, 너야?

물 먹은 스카프 성준에게 닿을 듯....닿을 듯... 하다 물결 타고 멀어진다.

성준 가지마!.....가지마. 은홍아!!!!

철벽철벽, 물속을 허우적거리며 따라가는 성준  
옷이 젖고, 그러다 얼어지고, 온 몸이 젖는다. 몸부림치는 성준  
그래도 성준의 손끝에 닿지 않고 떠내려가던 스카프  
어느샌 가 돌 틈에 끼어, 떠나가지도 못하면서 안타깝게 흔들리고만 있다.  
허우적거리며 다가가 스카프를 가슴에 안는 성준

성준 가지 마... 이제야 네가 보이는데...  
내 심장이 널 위해 뛰기 시작했는데...  
(허공을 향해) 넌 어디로 간 거야!! 은홍아.....은.홍.아.....!!!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비명인 듯, 절규인 듯 성준의 먹먹한 마음을  
밤안개가 서서히 감싸 안으며....

## 82. 탄금호 (새벽)

자옥한 안개를 뚫고 작은 배가 나타난다.  
검은 양복을 제대로 갖춰 입은 성준, 배에 타며

성준 처제, 타  
은소 (고개를 가로 젖는) 전 여겼을 게요. 언니랑 둘이 가고 싶잖아요.

물살을 가르며 천천히 호수 가운데로 가는 배.  
밤새워 까칠한 얼굴, 충혈 된 눈. 하지만 신중하고 엄숙한 표정.  
성준, 흰 장갑을 꺼내 끼고 분골함을 연다.

성준 (수면 위에 유골을 가만히 놓아주는)

흰 가루들, 스며들듯 호수로 내려앉는다.  
두어 번, 놓아주고 분골함을 들여다보는 성준.  
아직 남은 가루들

성준 (분골함을 덮으며) 이만큼.... 당신 마음 이만큼만 여기 놓아줄게.  
나머지는 나랑 가자.

바람이 성준의 장갑 위에 남은 가루를 휘... 날리고 지나가고  
서서히 암전되며

### 83. 몽타주

암전 상태에서 mp3에 녹음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 청도 공항>

은홍 2002년 9월 청도 공항. 비가 내립니다. 계속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얼굴이 들키지 않게....  
아 들켰습니다. 조종사 아저씨가 날 돌아봅니다.  
어쩐지 저 사람에겐 들켜도 될 것 같습니다.

#### 청도 병원>

간호사 (중국어, 열쇠고리와 단추를 내밀며) 이거...  
은홍 이 열쇠고리 제거 아닌데요.. 단추도.... (잠시 생각하다) 혹시 이 분이 절 살린 건가요?  
간호사 (중국어) 남자분이 아가씨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안고 뛰어왔는지...  
아가씨 탈수되지 말라고 덮어주다 단추가 떨어졌나 보네요.  
은홍 (못 알아들지만 느낌으로 전해져오는)

화면 서서히 밝아진다. 하지만 환하지 않는 색.  
빛바랜 느낌으로

#### 은홍 방>

은홍 2005년 4월 9일. 은소야! 지금은 언닐 이해 못해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넌, 꼭 널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

#### 어느 거리/차안>

은홍 (오른 쪽 컷가에 속삭이듯) 성준씨, 이쪽 귀로는 내 마음을 들어주세요.  
마음의 소리는 고막이 없어도 심장이 듣는대요.  
성준 너 내가 웅얼거리지 말랬지.  
은홍 (mp3에 녹음하다가) 별말 아닌데.... 연습한 거예요.

#### 84. 성준의 집 (아침, 회상)

출근준비 하는 성준

은홍, 가방 내밀면 받으며

성준 이번 프로젝트만 되면 시간 좀 나는데, 어디 바람이나 쐬러갈까?

은홍 (눈 커지며) 그래도 돼요?

성준 결혼기념일도 그냥 넘어갔는데 가까운 데라도 한 번 가지 뭐.

은홍 그럼, 당신 생일 날 가요. 얼마 안 남았으니

성준 내 생일?.... 그런가..... 그러던지.

은홍 (씩 웃는) 전 바람 부는 곳이면 다 좋아요. 스카프 가져가야지.

성준, 가방 받고 나가면

기분 좋아진 은홍, 콧노래 부르며 집안 정리한다.

장식장, 약혼식 사진 옆에 도열하듯 쪽 놓인 비행기 모형들

물끄러미 바라보다 하나하나 꺼내서 물휴지로 닦아주는데...

커지는 은홍의 눈!

어느 모형비행기의 바닥에 쓰인 글씨가 보인다.

성준 (자막) 2002년 청도. 어느 재밌는 아가씨와 화과집에서!

이름 물어볼 걸....

보고 있던 은홍의 눈에 서서히 차오르는 눈물

은홍 날.... 기억하고 있었어.

비행기 모형 위로 뚝 떨어지는 눈물.

은홍, 물휴지로 조심히 눈물 닦아내 원래자리에 놓아주고

돌아서는데 발에 걸리는 무언가

탁자 밑에 떨어진 USB다.

은홍 어. 이거 중요한 거 안 가져갔네... (베란다 여는 소리, 크게 외치는)

성준씨, USB가져가요.

#### 85. 성준의 집 앞 (아침)

급하게 나온 은홍.

USB를 손에 들고 뛰어간다.

저 멀리 이미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 성준

#### 86. 어느 도로 (아침)

1신과 같은 거리, 같은 상황  
걸어가는 성준, 그 뒤로 사거리 너머에서 달려오는 은홍이 보인다.

은홍 (활짝 웃는) 성준씨!

긴가민가 가우뚱하는 성준,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돌아보는 순간, 은홍을 가리며 지나가는 버스  
성준, 둘러보다 고개 돌린다.  
다시 걷는 성준 기우뚱하며 가로등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서류가 떨어진다.  
반대편에 선 은홍

은홍 (크게) 성준씨, 이거 가져가라구요.

성준, 흩어진 서류들 줍는데 어디선가 또 소리가 들리는 듯.  
돌아보지만 수많은 사람들.  
소리가 난 건지 아닌지 구분이 안가 뒤돌아보는.  
사람들 사이에 은홍이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다.  
성준에게 전화하는 은홍, 성준 받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급하게 지나가느라 은홍을 밀치고, 그 바람에 휴대폰이 떨어진다.  
은홍, 다시 전화하지만 이미 전화 받고 있는 성준

성준 어, 훈철아 왜! 이 근처라구?

은홍의 휴대폰에서 들리는 소리 “상대방이 통화중이라 전화를 연결할 수 없어...”  
성준, 통화하면서 도로 안쪽으로 떨어진 서류를 집는데  
성준의 뒤쪽 도로에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덤프트럭

은홍 성준씨, 뒤에 트럭! 조심해요. (목이 터져라 소리치는) 성준씨,  
내말 들려요? 어서 피해요.

성준, 왠지 이상한 느낌에 주위를 돌아 보는데....  
은홍은 발견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소리치는 은홍.  
은홍, 성준이 위험할까봐 소리치느라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한다.  
끼이익 급정거하는 차의 바퀴. 시야를 가리는 헤드라이트.  
뒤늦게 돌아보는 은홍의 동공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며  
퍽! 하고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은홍의 몸

덤프트럭이 확 스치며 지나간 뒤로 나타나는 성준.  
성준의 놀란 눈, 한동안 굳어 있다가 한숨을 내쉬는데  
다가오며 손 드는 훈철

성준      여기까지 웬일이야?

훈철      처형 집이 근처잖아. 저쪽 골목에 차 있으니 같이 가자고

이때, 길 반대쪽에 우르르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는 성준

이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려진 은홍, 보이지 않고

성준      저기 사고 났나본데.

훈철      그거 구경할 틈이 어딤어. 오늘 감사 나오는 거 몰라?

성준      하긴 밤 샜더니 멍하다.

훈철      은홍씨 잘 있지?

성준      뭐..... 별일은 없겠지.

둘러싼 사람들 은홍을 향해 뭐라고 뭐라고 소리치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는 은홍.

둘러싼 사람들 때문에 성준이 보이지 않는 은홍

사람들의 다리 사이로 성준을 쫓고

은홍      (가물거리는 눈으로) 다행이에요.....성준씨... 무사해서...

이때, 바닥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피.....

은홍의 머리카락을 적신다.

성준      (휴대폰 보다가) 전화 왜 했지? (신호 누르는)

은홍의 휴대폰 울린다.

전화를 받으려고 손을 움직거리는 은홍.

하지만 안간힘을 쓰는 은홍의 피 묻은 손가락은 이미 힘을 잃은 지 오래다.

계속 울리는 전화벨.

그 옆에서 떨리기만 하고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은홍의 손.

은홍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휴대폰에 떨어진다.

은홍      (휴대폰을 바라보며) 나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난 당신이 날

잊은 줄 알고... 삼킨 말이 많은데....다 하고 싶은데....

이젠... 늦은 거죠....

통화가 되지 않자

한 번 더 쭈 돌아보고 뒤돌아 가는 성준

훈철과 서로 어깨 두드리며 웃고....

저벅저벅, 무심하게 걸어가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성준의 발.

성준의 발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초점을 잃는 은홍의 눈동자

미련이 남는 듯 몇 번 움찔거리며 반항하던 가냘픈 팔이 툭! 떨어진다.

경련하던 은홍의 손에 꼭 쥐어진 USB

은홍의 손가락을 타고 천천히 흐르는 핏물...

## 87. 성준의 집 현관 (오후)

택배 봉투에서 USB 꺼내는 성준,

화장터 직원(F) 여기 화장터데요. 이은홍씨 유품에서 빠진 게 있어서요.

어찌나 세게 쥐고 있던지 분리하기 힘들어서 뭔가 아주 중요한  
물건이다 싶었는데 직원이 실수로 빠트렸나 봅니다.

허망한 얼굴로 USB 쥐어보는 성준.

표정 점점 일그러지며

성준     이게, 뭐가 중요해! 이딴 게 뭐라고!

성준, USB를 벽에 집어 던진다.

성준     겨우 이거랑 널 바꾼 거야? 겨우.....

USB에 맞은 은홍 사진, 뺨이 굼힌다.

약혼식 사진이다. 은홍은 그래도 웃고 있다.

들쭉거리는 성준의 어깨, 기어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팔뚝으로 얼굴을 가린 채, 빈 거실에서 한참 동안 흐느끼는 성준.

F.O.

## 88. 성준의 집 욕실 (아침)

F.I.

늦게 일어났는지 머리에 까치집 엮은 채 급하게 들어오는 성준

화장실에 앉아서 일보며 동시에 이 닦고

샤워기 꼭지 틀어 머리에 물 묻히며

샴푸 용기를 쭉 짜지만 헛바람만 나온다.

성준     은홍아 샴푸 떨어졌어!, 은홍아!

하다가 우뚝 정지하는 성준.

순간, 은홍의 부재가 느껴지고....

고개숙인채로, 틀어진 물줄기가 하수도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만 있는 성준



## 89. 동 거실 (저녁)

식탁에 앉아 혼자 밥 먹는 성준  
너무 조용하다.  
어색해서 TV켜고.

성준     나, 물.... (하다가 은홍의 빈자리보고)

일어나 냉장고 여는 성준.  
물통에서 물 따라 마시다 우웁 뱉으며

성준     이거 뭐야. 물에 한약 넣지 말래니까....

괜히 더 화가 나는 성준, 싱크대로 가져가 물병에 남은 물을 버리려는데  
물병에 쓰여 있는 글씨가 보인다.

자막     성준씨, 불면증에 좋은 물

먹먹해지는 성준, 물병을 통째로 들어 벌컥벌컥 마신다.  
목에 걸려 킁킁 거리면서도 끝까지 다 마신다.  
사래가 들렸는지 가슴을 치다가, 세계.... 더 세계... 탄식하듯 세계 치는 성준  
목을 타고 흐른 물로 젖어가는 옷 언저리  
흘러내리는 물을 닦지도 않고 눈 감는 성준

## 90. 동 침실 (새벽)

눈이 뜨이고..... 뒤척이다 일어나는 성준  
허전하다. 은홍의 자리를 쓸어본다.  
옆에 놓인 은홍의 베개에 눈이 가면 베개를 들어 은홍의 체취를 맡아본다.  
베개를 안고 눕는 성준, 잠을 청해보지만 더 말뚱말뚱해지고....  
이불 박차고 나가는 성준

## 91. 근교 어느 거리 / 차안 (현재, 새벽)

잠시 신호등에 걸려있는 성준의 차.  
보조석 손잡이에 매어진 은홍의 스카프가 하늘거리고  
담배 한 대 물며 재형의 지갑에서 몰래 빼온 은홍의 사진을 꺼내보는 성준

성준     웃지마. (허탈하게 피식, 웃으며) 만지지도 못하게 하면서...

하며 고개 돌리던 성준.  
갑자기 성준의 눈이 누군가를 급하게 쫓는다.

환하게 웃는 은홍이 사람들 사이로 지나간 거 같다.  
그대로 길가에 차를 거칠게 대고, 뛰쳐나가는 성준

## 92. 동 근처 새벽시장 (새벽)

사람들 틈을 헤치고 빠르게 걸어가는 성준.  
재래시장, 비좁고 복잡하다.  
사람들에게 부딪히며, 놓치지 않으려 뛰기 시작하는 성준.  
골목골목 빠르게 달려가고, 보일 듯 말듯 사라지는 실루엣  
모퉁이를 도는 순간  
텅 빈 거리! 아무도 없다.  
그길 끝 인적 뜸한 아스팔트를 바라보는 성준의 표정이 달라진다.  
눈동자, 서서히 젖어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성준

## 93. 동 아스팔트 끝 (새벽)

성준의 발이 멈춘다.  
새벽 미명이 밝아오고...  
어스름한 아스팔트 위에 흰색 페인트. 사고 지점에 그려진 은홍의 실루엣  
머리 부분은 아스팔트를 벗어나 옆 풀밭에 들어가 있다.  
실루엣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성준의 시선.  
그 붐비던 거리가 잠든 듯 조용하다.

성준, 눕는다. 은홍의 실루엣에 맞춰서....  
성준의 머리를 감싼 풀잎들 실바람에 흔들리고, 시리도록 푸르게 밝아오는 하늘.  
mp3를 꺼내 플레이 누르는 성준,  
이어폰 한 쪽은 자기 귀에, 다른 한 쪽은 은홍의 귀 부분에 놓아주고.  
이어폰에선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aven>이 흐르고  
성준의 눈동자 속 실핏줄이 점점 붉어지는데.....

두르르 문자가 온다. 보낸 사람은 은홍이다.  
성준의 커지는 눈.....떨리는 손으로 확인 누르는 성준

은홍 (E, 수줍게) 생일 축하해요, 성준씨! 바쁘면 못 볼까봐 미리  
예약문자 보내는 건데, 잘 들어갈까?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성준씨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이 꼭 나였으면 해요. 죽는 날까지....  
아니 그 후에도...

툭! 떨어지는 눈물방울  
성준의 눈가를 타고 흘러내려 은홍의 실루엣 안으로 스며들고

성준 (Na) 바람 분다.... 오랜만에 같이 소풍 나오니.... 좋아?

엔딩 크레딧 오르며

#### 94. 에필로그

성준의 차에 달린 은홍과 재형의 고교시절 사진.  
웃고 있는 그들 뒤로 사진 귀퉁이에 조그맣게 남자 두 명이 보인다.  
카메라, 사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 95. 대청호 근처 (회상, 해질녘)

남자 두 사람, 자전거 타고 호수를 향해 다가온다.  
전국일주 중인지 까맣게 그을린 얼굴, 땀에 젖은 옷.  
자전거 짐칸엔 커다란 배낭과 텐트가방.  
성준과 훈철이다.

훈철     이제 한, 반 정도 온 건가.  
성준     부산까지 가기도 전에 벌써 지쳤냐.  
훈철     어쭙, 저질체력인 너나 그러겠지.  
성준     빠질빠질 흘리는 땀이나 닦고 말해라, 자식아.  
훈철     취직하면 이렇게 무작정 달리고 싶어도 못 할 텐데...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다.  
성준     일주일 안에 서울까지 무리 없겠지?

이때, 저쪽에 있는 고등학생들 서로 사진 찍고 놀고 하다가  
캠프파이어를 하는지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카세트플레이어에서 음악이 흐르면,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춤추기 시작하는 어느 여학생  
은홍이다.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무대가 성대한 것도 아닌데  
은홍의 춤엔 마음을 끄는 울림이 느껴지고  
성준, 홀린 듯 바라본다.

훈철     (어깨를 툭 치며) 야  
성준     (못 듣고)  
훈철     (몇 번 더 치다가 어깨를 흔들며) 김 성준!  
성준     어?...어.  
훈철     (신기하단 듯) 너 이렇게 냅 놓고 바라보는 거 처음 본다.  
성준     그랬나...  
훈철     저 여자, 끌려?  
성준     글쎄.... 눈이 저절로 가는 여잔 처음인 거 같긴 하다.  
훈철     그럼, 잡아야지. 남자가!

하는데 재형이 은홍의 손을 잡고 들어간다.

다정해 보이는 그들

성준 (실망을 감추고 열게 웃으며) 만날 사람이면 다시 만나지겠지.

자전거에 발 올리고 페달 밟는 성준  
성준과 은홍, 점점 멀어지며  
그 위로 49인의 두 사람의 대화가 겹쳐진다.

은홍 (Na) 다시 오기만 한다면 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데...  
성준 (Na) 너무 늦게 온다면요....  
은홍 (Na) 그렇구나.....그건 오지 않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네요.

화면전체가 빗바랜 다이어리처럼 물들며 엔딩.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Cheongju Cultural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